

朴 泓 俊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蘇軾詞의 서정 특징 연구

2013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趙 貞 雅

蘇軾詞의 서정 특징 연구

朴泓俊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趙貞雅

認 准 書

趙貞雅의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박 홍 준 ①

審査委員 유 병 례 ①

審査委員 류 종 목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概要

蘇軾(1036-1101)은 宋代文學을 대표하는 중국의 大文豪로, 詩·散文·詞·繪畫 등 여러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소식의 사는 기존의 사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사문학 발전 과정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던 소식사의 서정에 입각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식의 생애와 문학관을 토대로 소식사에 내재된 독특한 서정을 밝혔으며 그 근원을 탐구하였다. 또한 소식의 편년사 292수를 대상으로 소식사 특유의 서정이 작품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식은 자신만의 확고한 문학창작 이념을 지닌 인물이었다. 먼저 소식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辭達論’을 통해 규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내용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예술형식 또한 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成竹在胸論’은 마음속에 대나무를 완성한 뒤 순간적이고도 망설임 없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지닌 추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한 후 자연스럽게 유창한 글쓰기를 통해 작품 속에 핵심이 녹아나도록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한편 ‘自然成文論’은 글을 짓기 위한 글짓기나 인위적인 조탁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소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창작동기를 가지고서 일부로 꾸미지 않는 글을 지어야 한다는 문학창작 이념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였다. 또한 그는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생각과 감흥을 가지고 작품을 써야 한다는 ‘直接經驗論’을 강조하였다. 상술한 문학이념들로 미루어 볼 때 자신만의 이야기와 생각을 가지고서 고유의 색깔로 표현해야 한다는 소식의 ‘個性化論’ 주장은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의 문학관념은 그의 굴곡 많은 인생 및 풍부한 감성과 어우러져 소식사에 특별한 서정을 담아내기에 이르렀다. 소식사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독특한 서정은 바로 ‘스토리가 있는 서정’이다. 소식은 ‘직접경험론’을 詞作에도 적용하여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사의 제재로 삼아 노래하였다. 이는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장소, 그리고 창작 동기 등을 밝힌 題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식사는 곧 소식의 인생 이야기로, 한편 한편이 모두 사연을 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소식사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면서 소식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룬다. 이처럼 소식사의 내용은 그의 實話이기에 청자·독자들은 작품 속에서 그의 꾸밈 없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큰 여운과 감동으로 이어진다. 소식사의 또 다른 독특한 서정으로 ‘1인칭 서정’을 들 수 있다. 소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에 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자신이 직접 작중 화자로 나선다. 즉 작자와 화자가 일치되면서 소식의 실제 생각과 감정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식은 기존의 송대 사들과는 달리 허구의 인물을 꾸며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독자들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세세하게 전달한다. 또한 소식사에 담긴 다양한 감정은 소식이 인생을 살아가며 실제로 느낀 喜怒哀樂이다. 따라서 이는 인류가 살아가며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기에 감상자의 공감을 극대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형성된 ‘스토리가 있는 서정’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노래 부름으로써 형성된 ‘1인칭 서정’으로 인해, 소식사에는 자연스럽게 평소 소식의 性情이 녹아들게 되었다. 그의 울곧은 인품과 긍정적이고도 성숙한 인생관이 작품 속에 융화되면서 소식사는 清雅하고 放曠한 풍격을 지니게 된다. 비록 지금까지 ‘豪放’이 소식사의 대표풍격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 그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맑고 고상하며 세속 초월적

인 청아한 사풍이 더욱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식사는 자유분방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듯한 방광한 사풍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방광한 풍격 형성에는 내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준으로 독특하게 운용되는 소식사 특유의 句法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청아·방광한 풍격은 이후 많은 사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南宋 詞人 姜夔와 辛棄疾은 소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목소리로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노래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야기를 사로 짓다 보니,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방도로써 題序併記를 착실히 하였다. 그 결과 강기의 사는 작자의 때 묻지 않은 성품이 사에 그대로 녹아들어 청아한 사풍을 띠게 되었다. 한편 신기질은 소식의 방광한 사풍을 계승하여 호방사를 완성시켰다.

소식사의 제서병기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대중적인 사를 문인의 개인적인 사로 끌어당기고 있으며, 1인칭 서정으로 인한 감정의 보편화는 문인의 개인적인 사를 다시 대중적인 사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소식사는 이 같은 내적인 수렴과 외적인 확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소식사의 서정은 당시 일률적이고 협소하던 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예술형식의 독창성도 가져왔다. 그 결과 소식사는 그만의 개성을 지닌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소식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풍부한 감성에서 나오는 꾸밈없는 참된 서정은 청자와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이 같은 소식사의 서정은 이후 많은 사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사문학 발전사에 있어 소식사가 절대적 위치를 점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目 次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동기 및 연구동향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II. 소식사의 시대 및 작가배경

1.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5
2. 北宋 詞壇 6
3. 소식의 생애 10

III. 소식의 문학관 및 소식사 개황

1. 소식의 문학관 16
 - 1) 辭達論 16
 - 2) 成竹在胸論 20
 - 3) 自然成文論 22

4) 直接經驗論	24
5) 個性化論	28
2. 소식사 개황	30

IV. 소식사 서정의 특징

1. 스토리가 있는 서정	32
1) 직접경험에서 나온 스토리	33
2) 꾸밈없는 眞情性	43
2. 1인칭 서정	44
1) 형으로서의 소식	47
2) 지아버로서의 소식	52
3) 벗으로서의 소식	57
4) 관리로서의 소식	62
5) 사상가로서의 소식	65
6) 전원·자연을 즐기는 한 인간으로서의 소식	68

V. 소식사의 風格

1. 清雅	73
2. 放曠	78

VI. 소식사의 영향	
1. 姜夔	90
2. 辛棄疾	94
VII. 결론	10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동기 및 연구동향

周知하듯 宋代의 大文豪 蘇軾은 詩, 散文, 詞, 繪畫 등 여러 방면에서 남다른 재능과 깊은 조예를 드러냈던 인물로, 국내외에서 그를 존경하고 계승하려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생존하던 당시로부터 약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식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중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는 중국문학에서 그가 이룩한 성취가 매우 의미 있으며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에서는 소식에 관한 연구가 여러 장르에 걸쳐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중문학계에서는 소식의 詩文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물론 소식의 詩文에 관한 업적들이 매우 훌륭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蘇軾詞가 詞文學史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淸의 詞學者 陳廷緯(1853-1892)은 《白雨齋詞話》卷7에서 ‘사람들이 소식의 詩文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으나 그의 詞가 그 위에 있음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소식의 詩文은 上之中下로 詞는 上之上으로 평가한 바 있다.¹⁾ 이는 소식의 많은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詞의 성취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에서는 소식사에 관한 연구 역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王保珍은 《東坡詞研究》에서 작품 연구를 위주로 하였으며, 陳滿銘은 《蘇辛

1) “人知東坡古詩古文卓絕百代，不知東坡之詞尤出於詩文之右。蓋仿九品論字之例，東坡詩文，縱列上品，亦不過爲上之中下，若詞則幾爲上之上矣。”(《白雨齋詞話》卷7)

詞比較研究》를 통해 소식과 신기질의 사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였다. 한편 龍沐勛의 《東坡樂府箋講疏》와 鄭向恒의 《東坡樂府校訂箋註》, 그리고 曹樹銘의 《蘇東坡詞》 등은 編年과 校註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밖에 龍沐勛의 〈東坡樂府綜論〉, 謝德瑩의 〈蘇東坡詞之特色〉, 〈蘇東坡詞之技巧〉, 馮裕明的〈東坡詞之聲律〉, 陳華昌의 〈試論蘇東坡詞的藝術風格〉, 周宗盛의 〈東坡也工婉弱詞〉, 朱靖華의 〈蘇軾以詩爲詞促成詞體革命〉, 景剛의 〈論蘇軾以詩言志〉, 朱德才의 〈論蘇軾對宋詞之開拓與創新〉, 齊文榜의 〈試論蘇軾的詞樂革新思想〉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 이로써 중국에서는 소식사의 校註·詞史·成就·思想·風格·形式·技巧·聲律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소식사 연구는 그의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車柱環의 〈東坡詞研究〉, 柳種陸의 〈蘇東坡詞의 特色〉, 〈蘇軾詞의 用典〉, 〈蘇軾詞의 音樂性〉 등의 논문은 ‘以詩爲詞’나 풍격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³⁾ 그 밖에 金昌慶의 〈東坡詞에 나타난 自我 研究〉, 申鉉錫의 〈東坡詞 研究〉, 田承燕의 〈蘇軾詞 意境 研究〉, 朴永子の 〈蘇軾의 哲理詞 研究〉, 呂承娟의 〈蘇軾 豪放詞의 分類에 관한 研究〉, 李俊和의 〈蘇軾詞의 特徵 및 政治生涯別 創作傾向의 變化〉, 魯瑄女の 〈蘇軾詞의 風格 分析〉 등이 있다. 대체로 소식사를 풍격별·시기별·내용별로 나누어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필자는 蘇軾詞가 詞文學 발전과정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소식사에 관한 연구가 그의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의문이 들었다. 한편 연구 경향에 있어서는 豪放詞 문제를 비롯한 風格에 관한 연구나 ‘以詩爲詞’ 등의 형식적인 부분을 다룬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소식사에 관심을 갖고

2) 신현석, 〈東坡詞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p.4-5.

3) 신현석, 같은 논문, p.5.

작품을 분석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 작품들과는 다른 소식사만의 강하고도 독특한 서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작자의 절절한 감정을 감상자가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큰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특히 소식의 생애와 소식사의 창작년도를 비교해 가며 보면, 작품이 작자의 삶과 포개어지면서 작자와 더욱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작품 속 화자가 수심에 차서 한탄하면 함께 가슴이 아프고,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닐며 즐거워하면 함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곤 한다. 詞는 본래 詩와 더불어 서정문학에 속한다. 따라서 다른 사인들의 작품에도 분명 서정이 기본적으로 담겨있다. 그런데 왜 다른 사 작품을 읽을 때보다 蘇軾詞를 감상할 때 작자와 더 큰 교감을 이루면서 절절함이 전해져오고 더욱 진한 감동이 느껴지는 것인가. 본고는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소식사 특유의 서정을 찾고, 그 근원과 영향 및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소식사의 서정을 논하기 앞서, 2장에서는 소식이 생존했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북송 詞壇의 대략적 정황 및 개인적 생애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소식의 문학관을 정리하고 소식사의 총체적인 특징을 짚어보려 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소식사 특유의 서정인 ‘스토리가 있는 서정’과 ‘1인칭 서정’을 구체적인 작품을 보며 그 영향과 의의를 고찰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과 연관이 있는 清雅·放曠한 풍격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같은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이 후대 詞人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蘇軾詞의 板本은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류를 계통화해 보면 다

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南宋 曾慥(1147년 전후)가 편찬한 《東坡先生長短句》(약칭 曾本)다. 원래의 책은 없어졌으나 이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明 毛晉(1599-1659)의 《宋六十名家詞》본 《東坡詞》(약칭 毛本)로 이어졌다. 둘째, 元 延祐 7년(1320)에 葉曾의 《東坡詞》(약칭 元本)다. 이것은 현존하는 소식사집 가운데 최초의 木刻本으로 28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 수는 적지만 소식사의 진면목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이는 이후 淸 王鵬運(1849-1904)의 《四印齋所刻詞》본 《東坡樂府》(약칭 四印齋本)의 저본이 되었다. 셋째, 南宋 傅幹이 정리하여 주석을 붙인 《注坡詞》(약칭 傅本)다. 소식사에 대한 최초의 주석본이며 272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판본을 두루 참고하여 이전보다 진일보한 여러 판본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소식사 판본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적으로는 유일하게 소식사 전체를 역해한 柳種睦의 《蘇東坡詞》를 저본으로 삼는다. 이 저서는 각종 소식사집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유관 논문들까지 두루 참고하여 가장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鄒同慶·王宗堂의 《蘇軾詞編年校註》(약칭 鄒王本, 北京:中華書局, 2002)에 수록된 작품들을 수록했다. 그리고 주석은 鄒王本을 비롯하여 각종 판본의 주석을 두루 참고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했고, 각 작품마다 창작시기와 창작의도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 저서는 소식사를 編年詞 292수, 未編年詞 39수, 互見詞 8수와 存疑詞 11수로 나누어 총 350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작가 생애와 작품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창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편년사 292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4) 류종목 역해, 《소동파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머리말 참조.

II. 소식사의 시대 및 작가 배경

1.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北宋은 太祖(960-975)에 이어 太宗(976-999)에 이르는 동안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지방의 병권과 재정권을 모두 중앙으로 거둬들였다.⁵⁾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봉건 왕조를 건립함과 동시에 문화면에도 힘써 중원의 문물은 다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문화·학술·문학·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북송의 이 같은 발전에는 급격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여러 도시들의 번성과 경제발전이 뒷받침 되었다. 북송의 경제적 번영은 대도시의 번성과 도시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 같은 변화는 문학창작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도시 번영이 극에 달하면서 도시인들의 자기 宴樂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는데, 이는 話本, 鼓子詞, 戲曲 등과 같은 민간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⁶⁾

한편, 송대에는 理學이라고도 불리는 新儒學이 성행하였다. 漢代에 정치·사회적 윤리와 질서를 세우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儒家思想은 魏晉 시기 이후 고도의 심성론과 체계적인 수양론을 갖춘 佛敎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유학은 불교의 심성론과 수양론에 대응할 수 있는 유가적 심성론과 수양론을 확립해야만 했다.⁷⁾ 中唐의 韓愈를 비롯한 유학자들

5)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 신아사, 2008, p.276 참조.

6) 박민정, 〈柳永과 蘇軾의 歌妓詞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3 참조.

7) 박석, 〈이학가 문학관의 내성적 경향〉, p.653-656. (설순남, 〈당송교체기 시와 사의 영향 관계 고

은 유가 자체 내의 內聖的 요소를 재발견하고 道·佛 이론도 원용하여 이전의 유가에 비해 심성론과 수양론을 갖춘 새로운 유학을 창도해냈는데, 그들이 내세운 유가의 심성론의 핵심이 바로 ‘理’였다. 따라서 전통유학이 외향적인 ‘禮’를 내세우는 經學이었다면 宋의 新儒學은 내재적인 ‘理’를 주창하였다. 송대문학은 이러한 理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문학의 사회 교화적 기능보다는 개인의 심성수양 기능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서정문학인 詩에 서조차도 감정이 탈색되었으며, 그 자리를 思辨과 哲理가 대신하게 되었다.⁸⁾

한편 송대는 文治주의였다. 宋太祖 趙匡胤은 唐代에 藩鎮 등 지방 군벌 세력이 자주 중앙정부와 맞서던 폐해를 귀감으로 삼아 무인의 등장을 억제하는 한편, 과거제도를 통해 士大夫들을 등용하고 우대하였다. 이렇게 정계에 진출한 사대부들은 사회를 개혁하려는 포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新儒學(理學)이 전통 유가사상 가운데 사대부의 사회적 사명감을 전면으로 부각시켰던 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시대적 사명감을 강조한 신유학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송대에는 초기부터 사대부가 주도하는 정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그와 맞물려 학술적으로는 유학의 부흥과 문장의 혁신을 외치는 古文運動이 전개되었다.

2. 北宋 詞壇

詞는 中唐에서 시작되어 晚唐·五代를 거치면서 문학의 지위를 확보한 뒤 宋代에 들어와 발전하고 꽃피운 송대 대표문학이다.⁹⁾

찰), 《中國文學》 제 67집, p. 57, 26번 주석 재인용)

8) 설순남, 같은 논문, p. 57-58 참조.

9) 김학주, 앞의 책, p. 316.

오늘날 음악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유추할 때 唐代에 유입된 호악은 속악에 비해 빠르고 반음계를 비교적 많이 썼으며 춤과 결합된 경우가 많았다. 속악과 호악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문화권의 음악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당 왕조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으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민간적 악곡의 가사가 바로 사였다. 따라서 사는 당시 민간인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던 그릇이었으며, 제재가 다양하고 언어는 청신·질박하였고 형식은 비교적 융통성 있었다. 실제로 돈황문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민간사의 주제는 종군의 괴로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심정, 남녀의 연정, 妓女의 신세 한탄 등 매우 다양하다.¹⁰⁾

唐代에 민간문학 영역에 머물렀던 사는 만당·오대에 들어오면서 문인들이 사 창작에 참여함에 따라 그 성격도 변화하게 된다. 송대 상공업의 발전으로 도시가 번성하여 사치와 宴樂의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사는 주로 연회 석에서 귀족들의 흥을 돋우는 수단으로 성행하였다. 따라서 사의 내용은 艷情해졌고 언어도 화려해졌으며 음률적인 조건도 보다 엄격해졌다.

宋 왕조 초기의 사는 花間派 사 작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五代의 사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張先(990-1078), 晏殊(991-1055), 歐陽脩(1007-1072), 晏幾道(1030-1106) 등을 대표작가로 하며, 감상적이고 여성적인 필치로 가볍고 낙천적인 도시적 정서를 노래하는 통속적인 노래 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송 왕조 초기의 사는 화간파를 연상시키는 감각적 분위기와 진한 색채감, 가벼운 감상과 세련된 서정 등이 두드러지며, 주로 짙막한 소령이 많다. 내용 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남녀간의 애정이나 봄이 가는 것을 슬퍼하고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傷春惜別의 정을 노래했다. 표현수법에 있어서는 섬약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완곡하고 함축적으로 묘사했다.

10) 김영구, 《중국문학사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p. 485.

안수는 북송사단의 문을 연 대표적 사인 중 한 사람이며, 婉約詞의 대표이기도 하다. 높은 벼슬에 올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던 안수는 花間·南唐詞의 완약한 풍격을 계승하면서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여 부귀하고 전아한 사풍을 발전시켰다. 안수 사의 내용은 시절에 대한 감회, 사랑과 이별의 情恨, 여성·꽃에 대한 노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 등이 주를 이룬다.¹¹⁾

구양수는 新舊의 詞風을 모두 취하였다. 그는 南唐五代詞의 영향을 받은 閨情을 노래한 사들도 많이 지었지만, 佳節이나 時序 및 遊覽時 풍경을 노래한 작품도 지어 제재를 확대시켰다. 풍격면에 있어서는 완약한 풍격의 작품뿐만 아니라 淡雅한 필치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써내려 가는 流儻한 사도 지었다. 또한 詞語의 사용에 있어서는 비유적·함축적이기 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俗語나 白話도 피하지 않았다.¹²⁾

안기도는 화간파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인으로 앞서 보았던 안수의 아들이다.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본인의 재주 또한 뛰어났지만, 호방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 결국 출세하지 못하고 불우한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대부분의 사는 지난날에 대한 추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情調가 哀傷的이고 懷憶的이며, 애절하고 처량한 作風이 주를 이룬다. 또한 詩人의 句法을 사에 전입시켜 비속하고 천박한 기운을 없애고 참신한 기풍을 창조하여 완약한 기풍의 안수 사와는 달리 솔직하고 深切한 사를 지었다.¹³⁾

柳永(990?-1050?)은 북송 慢詞의 개척자로서 송사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한 작가이다. 이전의 唐五代詞가 은유와 압축을 통해 이미지를 정련하였다면, 유영의 만사는 직설화법과 확대를 통해 서술의 자유화를 이룩하였다고

11) 이현미, 〈晏殊詞 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2) 김정현, 〈歐陽修詞研究〉,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3) 송용준, 〈小山詞의 風格과 特色〉, 《中國語文學》, Vol.3-No.1, 1981. p.200, 204 참조.

할 수 있다. 또한 유영은 당시 시민계층의 정서를 만사에 잘 담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당시에 가장 환영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¹⁴⁾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기루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기녀들과 악공들에게 사를 지어주었다. 따라서 그는 일상적인 口語와 俗語를 사용해 생동하는 사를 지었다. 일각에서는 유영 사의 내용이 도시인의 음란한 향락과 감상을 주로 노래하여 저속하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우물을 마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노래 부른다(凡有井水飲處, 即能歌柳詞)’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장선은 사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前代 사인이나 同時代 사인들과 차별되는 업적을 남겼다. 먼저 형식에 있어서 장선은 많은 詞調를 창작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소령의 사조뿐만 아니라 만사의 사조 창작에도 힘써 만사 발전에 기여하였다.¹⁵⁾ 또한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가지고서 사를 지어 제재의 확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장선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詩에서 주로 쓰던 唱和와 贈答의 형식을 詞에서 시험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선은 이전까지 극히 부분적으로 시도되던 詞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상으로 北宋 前期 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만당·오대의 문인사풍을 계승하여 남녀간의 정이나 感時·閑情 등을 소령에 담아낸 흐름으로 안수·안기도·구양수를 대표작가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편폭이 긴 만사를 즐겨 쓰고 민간사의 풍격과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 남녀의 歡樂과 聲色을 주로 노래하는 한편 자신의 客苦를 담아내기도 한 비교적 혁신적인 흐름으로 유영을 대표작가로 들 수 있다. 장선은 이 두 흐름의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題序나 唱和 등 詩의 형식들을 사에 적용하고 시험해 보았는데, 이는 이후 소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4) 박홍준, 〈柳永의 慢詞와 문학의 대중화〉, 《진리논단》, Vol.-No.6, 2001.

15) 정태업, 〈張先詞에 나타난 前代詞風の 收用과 脫出〉, 《中國語文論譯叢刊》, Vol.17, 2006.

또한 장선은 사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 시도함으로써 사의 내용상의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여기에 유영으로 인한 慢詞의 발달이 더해져, 이후 소식이 개성적인 사를 짓는데 礎石이 되었다.¹⁶⁾

3. 소식의 생애

蘇軾(1036-1101)은 宋 仁宗 景祐 3년 丙子(1036) 음력 12월 19일 四川省 眉山縣 紗縠行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軾이고 字는 子瞻 또는 和仲이며, 東坡는 그의 호다. 그의 본명에는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거리낌 없이 토로해버리고 마는 소동파의 성향을 우려한 蘇洵의 근심어린 배려가 담겨 있다. 이는 소순이 지은 〈名二子說〉에서 알 수 있다.

수레바퀴·수레바퀴살·수레덜개·수레뒤턱나무는 모두 수레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유독 수레앞턱가로나무(軾)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레앞턱가로나무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그러고도 온전한 수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식아. 나는 네가 너무 걸모양을 꾸미지 않을까 걱정이다.¹⁷⁾

소식은 8살에 향교에 입학하여 天慶觀 도사 張易簡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그는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재능과 패기가 남달랐다. 〈范文正公集序〉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慶曆 3년(1043)에 나는 처음으로 머리를 묶고 향교에 입학했다. 그 당

16) 류종목, 《蘇軾詞研究》, 중문, 1993. p.17 참조.

17) 輪輻蓋軫, 皆有職乎車, 而軾獨若無所爲者. 雖然, 去軾則吾未見其爲完車也. 軾乎, 吾懼汝之外飾也. 〈名二子說〉

시에 도성에서 온 한 선비가 룡지방 사람 石介가 지은 〈慶曆聖德詩〉를 향(鄉)선생님께 보여주었다. 나는 옆에서 훑쳐보고는 곧 그 말을 외울 수 있게 되어 선생님께 시에서 칭송한 11명이 어떤 사람이냐고 여쭙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가 그것은 알아서 무엇하느냐?’ 라고 하셨다. 내가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히 알아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들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라고 하자 선생님께서 내 말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 말씀해 주셨다. 18)

이처럼 소식은 매우 총명하고도 당돌한 학생이었다.

경력 7년(1047)부터 소식은 본격적으로 소순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다. 소순은 자식들에게 뜻(意)이 담겨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글이야말로 훌륭한 글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이후 소식의 문학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소식은 26세(1061)가 되던 해 동생 蘇轍과 制科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文才를 떨쳤다. 그 이후 순조롭던 소식의 정치 인생은 왕안석의 신법 강행에 반대하면서 당쟁에 휘말리게 된다. 19) 당시 王安石은 范仲淹·韓琦·歐陽脩·司馬光 등 많은 원로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법을 강행하여 신법파와 구법파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어냈다. 당시 실권자였던 왕안석이 제창한 신법은 시대적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긴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소식은 신법의 문제점들을 날날이 파헤쳐 상소문을 거듭 올렸고, 자연히 왕안석 일파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소식을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왕안석 일

18) 慶曆三年，軾始總角入鄉校，士有自京師來者，以魯人石守道所作《慶曆聖德詩》示鄉先生。軾從旁竊觀，則能誦習其詞，問先生以所頌十一人者何人也？先生曰：‘童子何用知之。’軾曰：‘此天人也耶，則不敢知，若亦人耳，何爲其不可？’先生奇軾言，盡以告之。〈范文正公集序〉(《蘇軾文集》卷10)

19) 여승연, 〈蘇軾 豪放詞의 分類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8
참조

파에 위험을 느낀 소식은 급히 외직을 자청하여 36세(1071)되던 해 杭州通判으로 나갔다. 이 때 소식은 항주에 은퇴해 있던 詞壇의 원로 張先(990-1078)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46살의 나이차를 잊은 忘年之交를 맺었으며, 그와 교류하면서 소식은 詞를 짓기 시작했다. 이런 교류를 통하여 장선은 소식의 詞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소식은 濟州(지금의 山東省 濟南)의 掌書記로 있던 소철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지내기 위해, 가난한 고을인 密州의 知州로 자청해 갔다. 밀주는 거둬들인 가뭄과 메뚜기 피해가 겹쳐 백성들이 자식을 내다버릴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소식은 이를 매우 불쌍히 여겨 버려진 아이들을 대신 기를 사람에게 쌀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고 친히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주워오기도 하였다. 또한 조정에서 세금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소식 자신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만, 당시 그가 지은 <超然臺記>를 통해 세속적인 물질에 초연한 인생관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평안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왔을 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 도적이 들판을 메우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주방은 썰렁하니 아무것도 없어서 날마다 구기자와 국화를 먹었으니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있는 지 1년이 되자 풍모가 더 좋아지고 하얗던 머리카락이 날로 검어졌다. 나도 이곳의 순박한 풍속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곳의 아전과 백성들 또한 나의 세련되지 못한 언행에 편안함을 느꼈다.²⁰⁾

42세(1077)되던 해 소식은 徐州知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시기 黃河가

20) 始至之日，歲比不登，盜賊滿野，獄訟充斥，而齋廚索然，日食杞菊，人固疑余之不樂也。處之期年，而貌加豐，髮之白者，日以反黑。余既樂其風俗之淳，而其吏民亦安予之拙也。〈超然臺記〉(《蘇軾文集》卷11)

범람한데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서주는 물바다가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소식은 몸을 사리지 않고 제방 쌓는 공사를 밤낮으로 지휘하여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소식은 밀주에서처럼 서주에서도 언제나 백성들을 걱정하고 위하였으며 그들과 同苦同樂하였다.

1079년 湖州知州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아 호주에 도착한 소식은 부임보고서인 〈湖州謝表〉를 올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리석어 시의에 적합하지 않아 신진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알아차리고서(知其愚不適時, 難以追陪新進)’라는 구절이 문제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신진 인사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듯하나 실은 신법파 인사들을 조소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식이 지방관으로 나가있는 동안 신법 시행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여 신법파의 신진인사들에게 불만이 있던 데다, 할 말은 꼭 하고야 마는 소식의 거침없고 솔직한 천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이 구절은 결국 신법파의 비위를 건드려 烏臺詩案이라는 큰 화를 부르고 말았다. 신법파의 신진 인사들은 〈호주사표〉를 비롯하여 트집 잡을만한 갖은 글들을 긁어모은 뒤, 조정을 우롱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며 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소식을 모함하였다. 이에 소식이 어사대 감옥에 투옥되자, 동생 소철을 비롯하여 전직 재상인 張方平과 范鎮 등 원로대신들은 물론 인종의 황후인 曹太后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였다. 심지어 신법파의 章惇과 은퇴해 있던 왕안석도 소식을 위해 변호했다. 이로써 간신히 사형을 면한 소식은 12월 29일 黃州로 유배가게 되었다. 오대시안을 겪은 후로 소식은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던 사상과 태도에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불교와 도교에 심취하였는데, 세속적인 일로 고통 받고 있던 시기에 그는 여기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을 것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으로 의지했을 것이다. 한편 소식은 이 시기 知人の 도움으로 황무지를 얻어 개간에 성공하여 ‘東坡’라는 이름을 붙이

고, 자신의 號도 ‘東坡居士’라 지었다. 당시 황주 일대에는 가난을 못 이긴 나머지 막 태어난 자식을 죽이는 습속이 있었다. 이를 전해들은 소식은 가슴 아파하며 鄂州知州 朱壽昌에게 서신을 보내 이 참혹한 풍속을 개선할 방도를 제의하였다. 아울러 옥아회를 결성해 부자들에게 매년 1만전씩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소식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만전씩 냈다. 이와 같은 소식과 주수창의 노력으로 황주의 영아살해 풍속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소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고 정 많은 인물이었다.

神宗皇帝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哲宗이 즉위하자 宣仁太后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신종이 생전에 소식을 아끼던 것을 잘 알고 있던 선인태후는 소식의 죄를 사면하고 그를 朝廷으로 불러들였다. 근 6년의 유배생활을 일단락 지은 소식은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였다. 선인태후는 新法派를 몰아내고 舊法派를 중용하였으며, 이에 재상이 된 司馬光은 모든 신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본래 신법을 반대하던 입장에 서있던 소식은 신법 중 하나인 免役法의 진보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장점이 있는 것은 계속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면역법이 폐지되긴 했지만, 이처럼 소식은 정세를 좇아 부화뇌동하는 소인배가 아닌 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소식의 직위는 翰林學士 知制誥에까지 오른다. 하지만 그를 견제하고 질시하던 무리들의 갖은 모함을 견디다 못한 소식은 또 다시 외임을 자청해 杭州知州·穎州知州·揚州知州를 역임한다.

1093년 태황태후가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친정하면서 신법파 인사들이 다시 대거 등용되었다. 아울러 장돈이 재상이 되자 살벌한 반대파 숙청이 시작되었다. 특히 소식을 미워하던 장돈 일파는 소식의 관직을 삭탈하고 莒州知州로 좌천시켰다. 영주는 아열대지방으로 날씨가 무더우며 특히 瘴氣가

많아 풍토병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곳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둔 일파는 죄상을 날조해 내어 소식에게 惠州 유배령을 내렸으며 거주의 자유마저 박탈해 버렸다. 혜주에서의 유배 생활을 시작한 소식은 북쪽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혜주를 고향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듬해 62세 노인이 된 소식에게 儋州安置 유배령이 다시 내려졌다. 조정에 있던 소식의 정적들이 그가 스스로 혜주사람이라 여기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취한 조치였다. 이에 소식은 바다 건너 중화권 밖이라 할 수 있는 해남도 담주에까지 유배 가게 되었다. 그러나 소식은 무덤고 가난한 담주에서도 초연한 마음을 견지하면서 陶淵明의 모든 시에 화운한 和陶詩 124수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 상태이던 《易傳》과 《書傳》도 완성했다.

이렇게 담주에서의 3년을 잘 견딘 소식은 65세(1100) 때 廉州安置의 부분적 사면령을 받아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해 8월 舒州團練副使 永州居住로 더욱 경감이 되었으며, 11월에는 완전히 사면되어 관직을 회복함과 동시에 마침내 거주의 자유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소식은 평생 염원하던 동생과의 對床夜雨 꿈을 이루기 위해 소철이 거주하고 있던 영창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법파의 중진인 曾布가 조정의 권력을 잡고서 다시 원수대신들을 제거하고 신종의 정책으로 돌아가려 하자, 결국 소식은 동생을 만나지도 못한 채 常州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힘든 여정과 무더위에 지친데다 병세가 악화된 소식은 결국 1101년 7월 28일 66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쳤다.

Ⅲ. 소식의 문학관 및 소식사 개황

1. 소식의 문학관

詞는 본래 詩와 더불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抒情的인 문학장르에 속한다. 소식의 사도 다른 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짙은 서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를 감상하다 보면 다른 사인들의 작품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 감상자에게 보다 절절하고 깊은 감동을 가져다준다. 여기서 소식사의 서정이 다른 사인들의 서정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소식이 평소 어떠한 신조를 가지고서 문학창작에 임했는지 그의 문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소식은 문학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詩·散文·書 등의 작품 속에는 평소 그가 견지한 인생관과 더불어 문학창작에 관한 태도와 신념이 녹아있다. 따라서 본 3장에서는 소식이 지은 문학작품들을 토대로 소식사가 지닌 독특한 서정의 토대가 되는 그의 주요 문학이념들을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1) 辭達論

평소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던 소식은 글을 짓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술형식, 즉 文辭를 버리고 내용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글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즉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술형식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요컨대 소식은 양자를 모두 중시하는 가운데, 내용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이 뒤따라야지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이 같은 소식의 문학관은 아버지 蘇洵의 어릴 적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鳧繹先生文集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옛날에 나의 선친께서 도성으로 가서 여러 대신들과 교유하다가 돌아와서 나에게, ‘이 이후로 문장은 날로 아름다워지겠지만 道는 장차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선비들이 먼 것만 흠모하고 가까운 것은 소홀히 하며 꽃을 귀하게 여기고 열매는 천대하니 나는 이미 그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시고는 魯지방 사람인 鳧繹(顏太初)선생의 詩文 10편을 보여주시면서, ‘애야,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천하에 다시는 이런 글을 짓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선생의 시문은 모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지은 것으로 날카롭고 곧세고 정확하고 절실하며, 그의 말은 꼭 당시의 잘못을 꿰뚫고 있다. 정확하기는 五穀이 틀림없이 배고픔을 고치는 것과 같고 단호하기는 藥石이 틀림없이 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선친은 이미 돌아가셨건만 그 말씀은 남아 있다²¹⁾

이처럼 소식은 자식들에게 걸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은 비어있는 글은 지양하고, 道와 뜻(志)을 담고 있는 글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소식은 아버

21) 昔先君適京師，與卿士大夫遊，歸以語軾曰：“自今以往，文章其日工，而道將散矣。士慕遠而忽近，貴華而賤實，吾已見其兆矣。”以魯人鳧繹先生之詩文十篇示軾曰：“小子識之。後數十年，天下無復爲斯文者也。先生之詩文，皆有爲而作，精悍確苦，言必中當世之過，鑿鑿乎如五穀必可以療飢，斷斷乎如藥石必可以伐病...”其後二十餘年，先君既沒，而其言存。〈鳧繹先生文集敘〉(《蘇軾文集》卷10)

지가 세상을 떠나고 20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을 회고하여 글로 남길만큼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실천하였다.

또한 소식은 자신의 문학관을 다음과 같이 孔子의 말을 빌어 나타내기도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文辭는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물은 본래 그것마다의 고유한 이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입과 손으로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문사란 이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에 文采가 없으면 멀리까지 전해지지 못한다’ 고 하였고, ‘문사는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대체로 뜻을 전달하는 데서 그친다고 하면 문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의 오묘함을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묶고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으니, 그 사물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와 닿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천 명 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입과 손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辭達입니다. 이미 뜻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르렀다면, 문체의 효용은 이미 다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

머리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

22) 孔子曰：“辭達而已矣。”物固有是理，愚不知之。知之愚不能達之於口與手。辭者，達是而已矣。〈答俞括書〉（《經進東坡文集事略》卷47）

23) 孔子曰，‘言之不文，行之不遠。’又曰，‘辭達而已矣。’夫言止于達意。疑若不文，是大不然。求物之妙，如系風捕景，能使是物了然於心者，蓋千萬人而不一遇也，而況能使了然于口與手乎？是之爲辭達。辭至于能達，而文不可勝用矣。〈與謝民師推官書〉（《蘇軾文集》卷49）

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언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술형식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사 없이 딱딱하고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받기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문사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용을 전달하는 임무를 잘 수행했으면 그것으로 그 쓰임을 다 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남용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의 辭達論은 당시 글을 짓는데 있어 내용을 우선시하고 예술형식의 기능 또한 중시하였던 북송 古文運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식은 송대의 다른 문인들보다 사달론을 더욱 강조하였던 듯하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내용을 중시하는 문학관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평생에 걸쳐 실용주의 가치관을 견지하였던만큼 이러한 성향이 누구보다도 강했을 것이다. 소식은 당시 다른 문학가들처럼 산문이나 시에서만 사달론에 입각해 작품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지극히 열정적이며 향락적인 기풍을 이루던 사의 영역에까지 사달론을 적용했다. 당시 송대 시는 理學의 유행과 신진사대부들의 정계 진출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으로 철리화·사념화 되어갔고 점차 서정성이 탈색되었다. 이에 송대 문인들은 자신들의 감성을 표출할 출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외의 또 다른 서정문학인 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증폭되었으며, 여기에 자신들의 감성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감성으로 지어진 북송사들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형식의 틀에 맞추어 연회의 향락이나 가기와 사랑 노래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식은 이 같은 사풍이 유행하는 가운데, 같은 서정이라도 내용이 있는 서정을 표출했으며 틀에 짜여진 예술형식보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우선시 하였다. 그 결과 소식사 안에는 작품을 통

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연이 담기게 되었다. 또한 그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형식을 조금 벗어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소식사의 흐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며 나아가 시원시원한 맛도 느낄 수 있다.

2) 成竹在胸論

‘成竹在胸論’은 본래 회화에 근원을 둔 이론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 앞서 ‘辭達論’에서 본 바와 같이 소식은 창작 과정에서 내용, 즉 ‘意’를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소식은 ‘成竹在胸論’을 통해 창작에 임하기 전 마음속에 전체적인 구상을 마치고 글을 지어야 ‘意’의 핵심을 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이 이론은 훌륭한 문학작품은 억지로 짜내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절정에 이르러 용솨음쳐 나올 때 무아지경 속에서 한꺼번에 쏟아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충분히 축적된 학문적 지식과 오랜 기간을 거쳐 숙성된 기술적 소양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소식은 이러한 자신의 문학관을 대나무를 그리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대나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한 치의 싹에 불과하나, 마디와 잎이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쓰르라미 배와 뱀 비늘 같은 죽순에서부터 칼을 뽑아 놓은 것 같은 열 길 높이의 큰 대나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생기면서부터 이미 지니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나무를 그리는 사람들은 마디를 하나하나 그리고 잎사귀를 하나씩 그려대니, 어찌 그렇게 해서 생동하는 대나무를 그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나무를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마음속으로 완성된 상태의 대나무를 구상한 다음, 붓을 잡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리고자 하는 것을 빨리 붓을

휘둘러 단숨에 완성해야 한다. 자기가 본 것을 좇기를 마치 매가 토끼를 덮치듯 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추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 24)

즉 이 글에서 소식은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마음속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형상화한 뒤 영감이 왔을 때를 포착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필휘지로 글을 완성해야 자연스럽게도 핵심이 잘 녹아있는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소식은 문학작품을 비평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도 작가가 표현한 의도에 근거하여 작품을 관찰하고 분석해야지, 글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나쁜 사람을 풍자할 때 그의 악행을 말하지 않고 높은 관직과 아름다운 수레·의복을 말하였는데도 백성들이 그를 미워함으로써 그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좋은 사람을 칭송할 때 그의 선행을 말하지 않고 의복·장식의 화려함과 그 모습의 성대함을 말하였는데도 백성들이 편안해하는 것으로써 그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창작을 할 때 작가의 구상과 표현은 모두 그가 세운 意와 중심사상을 위해 운용된다.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자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意’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24) 竹之始生，一寸之萌耳，而節葉具焉。自蝸腹蛇蚶，以至於劒拔十尋者，生而有之也。今畫者乃節節而爲之，葉葉而累之，豈復有竹乎？故畫竹必先成竹於胸中，執筆熟視，乃見其所欲畫者，急起從之，振筆直遂，以追其所見，如兔起鶻落，少縱則逝矣。〈文與可畫谷偃竹記〉（《蘇軾文集》卷11）

25) 故其譏刺是人也，不言其所爲之惡，而言其爵位之尊，車服之美，以民疾之，以觀其不堪也。……其頌美是人也，不言其所爲之善，而言其冠佩之華，容貌之盛，而民安之，以見其無愧也。〈既醉備五福論〉（《蘇軾詩集》卷2）

3) 自然成文論

소식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평이한 예술 풍격을 강조하였다.

옛날의 문인들은 문장을 지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산천의 구름과 안개·초목의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층만해지면 밖으로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니,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나는 부친으로부터 옛 성인들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바가 있을 때 글을 짓는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나와 동생 轍은 많은 글을 지었지만 의도적으로 글을 지으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²⁶⁾

위 문장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을 때 글을 지어야지, 글을 짓기 위한 글을 억지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식은 능수능란한 필력으로 유창하게 글을 지었으며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학관은 《文說》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나의 글은 만 섬이나 되는 많은 샘물이 땅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마구 솟아 나와 평지에서는 도도하게 팔팔 흘러서 하루에 천 리라도 어렵지 않으며 山石과 만나면 그 모양대로 구부러지고 물체를 따라 형체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가야만 할 곳으로 가고 항상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멈춘다는 것,

26) 夫昔之爲文者，非能爲之爲工，乃不能不爲之爲工也。山川之有雲霧，草木之有華實，充滿勃鬱而見于外，夫雖欲無有，其可得耶？自聞家君之論文，以爲古之聖人有所不能自己而作者，故軾與弟轍爲文至多，而未嘗敢有作文之意。〈南行前集序〉（《蘇軾文集》卷10）

이런 것뿐이다. 그 밖의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²⁷⁾

이 글은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써 나가는데 있어 물이 용솨음치듯 文筆이 붓끝에서 뿜어져 나와 거침없고 자연스럽게 써 내려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 맞닥뜨리는 물체에 맞게 변형되는 물의 속성처럼, 글을 쓰는데 있어서도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뜻을 전달하는 것에 맞게 변형하여 뜻이 형식에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형식의 틀을 엄두하고 글을 쓰다 보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생각이나 감흥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색하고 형식적인 글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소식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흥이 움직이고 멈추는 대로 자연스럽게 글을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또한 蘇洵이 《易·渙·象傳》에서 제창한 ‘바람이 물 위에 부는 것을 환이라 한다(風行水上, 渙)’의 이치이기도 하다. 소순은 《仲兄字文甫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무늬는 물의 무늬도 아니요, 바람의 무늬도 아니다. 이 두 사물은 무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과 바람이 서로 작용하여 그 사이에서 무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이 천하의 지극한 무늬이다. 저 옥의 빛깔이 은은하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늬가 될 수는 없다. 조각하고 수를 놓아 무늬를 이룰 수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무늬와 함께 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 인위적 조탁 없이 무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과 바람뿐이다.²⁸⁾

27) 吾文如萬斛泉源，不擇地而出，在平地滔滔汨汨，雖一日千里無難。及其與山石曲折，隨物賦形而不可知也。所可知者，常行於所當行，常止於不可不止，如是而已。其他雖吾亦不能知也。〈文說〉（《經進東坡文集事略》卷57）

28) 是其爲文也，非水之文也，非風之文也。二物者，非能爲文，而不能不爲文也。物之相使而出於其間也，故此天下之至文也。今夫玉非不溫然美矣，而不得以爲文。刻鏤組綯，非不文矣，而不可與論乎自然，故天

소순은 여기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비단을 짜듯 아로새기고 수식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른바 인위적 조탁이 없다는 것은 목적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 조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예술의 규율이 허용하는 전제 하에서 힘껏 자유로움을 추구하라는 것이다.²⁹⁾ 이는 이후 소식에게로 이어져 그가 강조했던 ‘自然成文論’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문학관은 소식사에도 적용되어, 억지로 꾸미고 치장하지 않는 데에서 맑은 아름다움과 고상한 정취 및 솔직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直接經驗論

蘇軾은 책상머리에 앉아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도출해낸 생각과 감흥을 글로 읽거나 전해 듣기만 해서는 참된 진리를 구할 수 없다고 여겼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의 문장을 통해 그의 이 같은 인생관과 문학관을 살펴보도록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해를 알지 못하여 눈이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해의 모양은 구리쟁반과 같다’라고 말해 주자 그는 쟁반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종소리를 듣고 해라고 여겼다. 또 어떤 사람이 ‘해의 빛은 촛불과 같다’라고 말해주자 그는 초를 더듬어서 그 모양을 알았다. 나중에 피리를 만져보고는 해라고 여겼다. 해는 종이나 피리와는 역시 거리가 먼데 장님이 그 다름을 알지 못한 것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下之無營而文生之者，唯水與風而已。（《嘉佑集》卷14）
29)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吉林教育出版社, 1991.

도를 알기 어려운 점은 해의 경우보다 더 심하니 사람들이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장님이 해를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리가 없다. 터득한 자가 일러줌에 있어서 비록 멋진 비유로 잘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역시 해를 쟁반과 초에 비유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다. 쟁반에서 종에 이르고, 초에서 피리에 이르는 것처럼 바꾸어가며 형상화한다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도를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이 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보지 못했으면서 억측으로 짐작하기도 하는데 모두 도를 구하는 잘못된 방법이다.³⁰⁾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남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얻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리이지 자신의 진리가 아니다. 또한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진리를 신봉할 위험성도 있다. 직접경험 없이 남의 경험만을 믿다가는 전달되는 가운데 오히려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결국 완전히 허상의 것을 추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식은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은 진리는 죽은 진리이며 공허한 의론일 뿐³¹⁾이라고 여겼으며, 반드시 직접경험을 통해 깨달음과 감흥을 얻고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公論이라 할지라도 직접체험을 통해 그 근원과 진실을 확인할 필요성을 역설한 소식의 명문 〈石鐘山記〉를 보기로 한다.

《水經》에 이르기를, ‘팽려호의 입구에 석종산이 있다’고 하였다. 酈

30) 生而少者不識日，問之有目者，或告之曰：“日之狀如銅盤。”扣盤而得其聲。他日聞鐘，以爲日也。或告之曰：“日之光如燭。”捫燭而得其形。他日揣籥，以爲日也。日之與鐘籥亦遠矣，而少者不知其異，以其未嘗見而求之人也。道之難見也甚於日，而人之未達也，無以異於少。達者告之，雖有巧譬善導，亦無以過於盤與燭也。自盤而之鐘，自燭而之籥，轉而相之，豈有既乎？故世之言道者，或即其所見而名之，或莫之見而意之，皆求道之過也。然則道卒不可求歟？〈日喻〉（《蘇軾文集》卷64）

31) 홍우흠, 《蘇東坡 文學의 背景》,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p.187.

道元은, 석종산은 깊은 못에 임하여 있어 미풍에 파도가 일면 물과 바위가 부딪쳐서 큰 종에서 나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이 설에 대해 사람들은 늘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오늘날 종이나 경쇠를 물속에 넣었을 때 비록 큰 풍랑이 일어도 소리를 울려낼 수 없으니, 하물며 바위의 경우에야 어떠하겠는가. 당나라 李渤에 이르러 비로소 그 자취를 찾았는데, 못가에서 돌 두 개를 찾아 두드려 들어보니 남쪽 것은 낮고 모호한 소리가 나고 북쪽 것은 맑고 여운이 있어, 두드림을 멈춰도 울림이 퍼져 여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산 이름의 연유를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설을 나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다. 쟁하고 소리나는 돌은 도처에 있다. 그런데 이 산만이 유독 鐘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어째서인가?

元豐 칠년 유월 정축일에 내가 齊安에서 배를 타고 臨汝로 가는데, 큰 아들 邁가 饒州의 德興縣 縣尉로 부임하는 터이라 그를 호수 입구까지 배웅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석종산이라는 곳을 볼 수 있었다. 스님이 어린아이에게 도끼를 가지고 어지럽게 깔린 돌 가운데 한두 개를 골라 두드리게 하니 ‘쿵 쿵’ 소리가 났다. 나는 실로 가소로워하며 믿지 않았다. 밤은 깊고 달이 밝자 단지 아들 매와 같이 작은 배로 절벽 아래에 이르렀다. 큰 바위는 옆으로 천 자 높이로 서 있는데 마치 맹수와 기괴한 귀신과도 같이 으스스 덩벼들 듯하였다.....내가 막 마음이 흔들려 돌아가고자 하는데, 물가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떼엥 땡’하고 종소리 북소리 같은 것이 그치지 않았다. 사공은 몹시 겁을 냈다. 천천히 살펴보니 산 아래는 온통 바위 구멍이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작은 물결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돌고 부딪치며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배를 두 산 사이까지 돌려 포구로 들어오려는데 큰 바위가 물길 가운데를 막고 있었다. 백 사람은 앞을 만하였다. 가운데가 빈데다 구멍이 많아 바람과 물을 삼키고 토해 내며 ‘콰앙 쿵’, ‘따앙 땡’하며 소리를 냈는데, 앞서 울리던 ‘떼엥 땡’ 소리와 호응하여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였다. 이에 웃으며 아들 매에게 말했다. “알겠느냐? ‘떼엥 땡’ 소리는 주나라 景王之 無射鐘소리요, ‘콰앙 쿵’ ‘따앙 땡’ 소리는 魏莊子의 歌鐘

소리다. 옛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았도다.”

사실에 대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서 그 유무를 억단하면 되겠는가? 역도원이 보고 들은 바는 대체로 나와 같았을 터인데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다. 사대부는 끝내 작은 배로 밤에 절벽 아래에 정박하려하지 않았을 것이니 아무도 실상을 몰랐다. 어부나 사공은 알기는 하여도 표현할 줄 몰랐다. 이것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데 고루한 이가 도끼로 두드려 소리를 찾아 실상을 알았다고 여긴다. 내 그런 까닭에 이 일을 기록하니, 역도원의 간략한 기록을 한탄하고 이발의 고루함을 비웃는 바이다.³²⁾

이렇듯 소식은 직접경험을 통해서야만 진정으로 참된 진리를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리를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 그의 사 작품 속에서도 역시 그의 직접체험 문학관이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보고 겪은 사건과 사물들, 그리고 이를 통해 갖게 된 생각과 느낌들을 그대로 작품 속에 녹여냈다. 따라서 그의 사는 생동감이 넘치고 진솔함이 느껴진다. 또한 작품마다 그가 겪은 일화와 사연이 담겨있기 때문에, 소식사를 감상하노라면 문학작품이라기보다 그의 일기나 편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이에 독자는 작자와 보다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교감을

32) 《水經》云：“彭蠡之口，有石鐘山焉。”酈元以爲下臨深潭，微風鼓浪，水石相搏，聲如洪鐘。是說也，人常疑之。今以鐘磬置水中，雖大風浪，不能鳴也，而況石乎？至唐李渤始訪其遺蹤，得雙石於潭上，扣而聆之，南聲函胡，北音清越，枹止響騰，餘韻徐歇，自以爲得之矣。然是說也，余尤疑之。石之鏗然有聲者，所在皆是也，而此獨以鐘名，何哉？元豐七年六月丁丑，余自齊安舟行適臨汝，而長子邁將赴饒之德與尉，送之至湖口，因得觀所謂石鐘者。寺僧使小童持斧，於亂石間擇一二扣之，硃硃然，余固笑而不信也。至莫夜月明，獨與邁乘小舟至絕壁下。大石側立千尺，如猛獸奇鬼，森然欲搏人。而山上栖鶻，聞人聲亦驚起，磔磔雲宵間，又有老人欬且笑於山谷中者，或曰：“此鸛鶴也。”余方心動欲還，而大聲發於水上，噌吰如鐘鼓不絕，舟人大恐。徐而察之，則山下皆石穴罅，不知其淺深，微波入焉，涵澹澎湃以爲此也。舟迴至兩山間，將入港口，有大石當中流，可坐百人，空中而多竅，與風水相吞吐，有窾坎鏗鏘之聲，與向之噌吰者相應，如樂作焉。因笑謂邁曰：“汝識之乎？噌吰者，周景王之無射也。窾坎鏗鏘者，魏莊子之歌鐘也。古之人不余欺也。”事不目見耳聞而臆斷其有無，可乎？酈元之所見聞，殆與余同，而言之不詳。士大夫終不肯以小舟夜泊絕壁之下，故莫能知。而漁工水師，雖知而不能言。此世所不傳也。而陋者乃以斧斤考擊而求之，自以爲得其實。余是以記之，蓋歎酈元之簡，而笑李渤之陋也。〈石鐘山記〉（《蘇軾文集》卷11）

이루며, 더 큰 감동을 받게 된다.

5) 個性化論

상술한 바와 같이 蘇軾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내용을 가장 중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신의 직접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모두 충실히 따른다면 자연히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담긴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글에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소식의 ‘개성화론’은 매우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아들 過뿐만 아니라 자신을 흠모해 그의 문학을 배우려는 문하생들에게까지도 모방을 멀리하고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장려했다. 평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인 詩文을 짓는 것을 염려하였던 소식은 張耒에게 보내는 편지에 당시 그러한 풍조를 조성하던 왕안석을 비판한 바 있다.

문자의 쇠퇴함이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었다. 그 근원은 실로 王氏에게서 나왔으니 왕씨의 문장이 꼭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동화되도록 하기를 좋아한 데 있다. 공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같도록 할 수 없었던 이후로 顏淵의 어짊과 子路의 용감함도 다른 사람에게 여전할 수 없었는데 왕씨는 그의 학문으로써 천하를 동화하려고 하는구나. 비옥한 땅은 사물을 생장케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생장시키는 사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다만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나 염분이 많은 개펄의 땅만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누런 띠와 하얀 갈대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왕씨가 동화하고자 하는 바이다.³³⁾

이처럼 소식은 아무리 좋은 문학작품이라 할지라도 남을 모방하려 애써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만의 문학 색깔로 표현해내야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기에, 각자의 개성을 매우 중시하였던 듯하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였던 소식의 문학관은 그의 사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식은 파란만장했던 삶 속에서 겪은 갖가지 사건들과 이를 통해 얻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고 얽매임 없이 사 속에 쏟아냈다. 때로는 본래 사의 형식에서 다소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전 사 작품들과는 다른 풍조의 사를 써내기도 했다. 그 결과 소식은 ‘以詩爲詞’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豪放詞의 창시자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 창작 태도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의 새로운 영역과 기풍을 열어 사 창작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사를 시에 버금가는 문학장르로 격상시켰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만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여 사의 쇠락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소식의 문학관으로 볼 때 그가 음악에 문외한이었거나 고의적으로 사의 고유한 맛을 해치면서 시처럼 지으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고 거침없이 전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의 틀에서 다소 벗어난 소식만의 개성적인 사가 형성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소식사 가운데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작가 소식이 사 작품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꾸

33) 文字之衰，未有如今日者也。其源實出於王氏，王氏之文，未必不善也，而患在於好使人同己。自孔子不能使人同，顏淵之仁，子路之勇，不能以相移。而王氏欲以其學同天下。地之美者同於生物，不同於所生。惟荒瘠斥鹵之地，彌望皆黃茅白葦。此則王氏之同也。〈答張文潛書〉(《蘇軾文集》卷19)

밈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형성된 소식사의 순도 높은 진정성과 독특한 서정은 약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사가 전해 내려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2. 蘇軾詞 개황

현존하는 蘇軾詞의 수량은 약 300여 수 정도다. 류종목의 《蘇東坡詞》에 따르면 소식사 가운데 창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編年詞는 292수,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未編年詞는 39수, 소식 사집 외에 다른 사인의 사집에도 수록된 互見詞는 8수, 소식이 지은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存疑詞는 11수에 이른다.

소식은 艷情한 내용이 주를 이루던 당시 풍조를 넘어서 다양한 제재를 취해 사로 지었다. 소식사의 제재는 크게 艷情과 宴樂, 友情과 憂愛, 계절의 정취, 인생무상과 세속초월의 의지, 농어촌의 생활상, 영물과 서경, 공명과 우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⁴⁾ 특히 友情詞는 소식사 300여 수 중 약 28%를 차지하는데, 종전의 사들이 주로 남녀간의 情을 노래하던 것과 달리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사상과 철리를 사에 담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이전에는 잘 지어지지 않던 詠物詞가 소식에 이르러 한 기풍을 이루었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

소식사 형식의 특징 중 하나는 시의 영역에서 주로 쓰이는 형식들을 끌어다 사에 적용시킨 것이다. 詞序·次韻·集句·回文·聯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소식은 ‘以詩爲詞’의 작사태도를 지닌 詞人이라는 평가를 받게

34) 류종목 역, 《소동파사》, p. 903 참조.

되었다. 특히 詞序는 張先이 초보적으로 시도하다가 소식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소식의 題序 併記는 이후 후대 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대부분의 사에 사서와 사제가 병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소식사는 여리고 감상적인 婉約風格에서 벗어나 清雅하고 放曠한 풍격으로 발전했다. 이로써 소식은 당시 일률적이던 사풍에 다양성을 제고시켰으며, 이후 豪放詞派가 형성되는데 기반이 되었다.

음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식사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 일각에서는 ‘以詩爲詞’의 작사태도로 사와 음률을 분리시킨 소식사는 本色이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소식이 호방파를 열면서 사가 쇠퇴하게 되었다고까지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소식은 음률에 정통했으나 음악적 효용보다는 문학적 효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소식사에 음악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문학발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소식사는 사를 抒情詩로 승격시킴으로써 정통문학의 대열로 끌어올려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식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소식이 제재·형식·풍격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사와는 다른 개성적인 詞作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詞文學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불러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소식사가 詞文學史上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소식사를 관찰하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IV. 蘇軾詞 서정의 특징

蘇軾은 삶을 살면서 보고 느낀 생각과 감흥을 큰 것부터 소소한 것까지 모두 詞의 제재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이나 가상의 화자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화자로 나섰다. 이에 소식사에서는 다른 사와는 다른 그만의 독특한 서정이 느껴진다. 먼저 소식은 자신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화들을 사에 담았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 스토리가 있는 서정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는 작가 자신이 직접 작중 화자로 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기에 소식사 대부분은 1인칭 서정으로 채워졌다. 본 4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서정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근원과 영향 및 의의를 고찰해 보려 한다.

1. 스토리가 있는 서정

蘇軾 이전의 北宋詞 작품들은 대부분 연회의 향락을 돋우기 위해 歌妓가 부르던 것이거나 일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부르던 유행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들은 가상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설사 작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를 지었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가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묘사하거나 가기와 짝은 사랑이나 이별을 섬약하게 그리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사 작품들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한정적이고 단편적인 감정전달을 위주로 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소식은 당시 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상들을 사의 제재로 삼았다. 여기에는 직접체험이 전제된 창작과 내용을 중시하던 그의 문학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소식은 그의 편년사 292수 중 대부분의 작품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그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놓고 있다. 따라서 소식사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의 일기를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요컨대 소식사에는 한편 한편마다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이는 다른 소식사 작품들과 연관성을 지니면서 소식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룬다.

1) 직접경험에서 나온 스토리

그렇다면 소식이 직접 체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사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는 소식이 詞牌名 옆에 併記한 題序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식사에서의 제서 병기는 본래 그의 ‘以詩爲詞’ 작사태도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된다. 보통 제서는 시를 지을 때 작품의 배경이나 창작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소식이 시를 짓듯 사를 지은 것은 당시 송대 시의 성격 변화와 관련이 있다.

唐人은 詩로써 시를 지었으나, 宋人은 산문으로써 시를 지었다. 唐詩는 情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詩經》에 가깝지만, 宋詩는 의론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詩經》에서 멀어졌다.³⁵⁾

이처럼 송대의 시가 점차 산문화 되고 사변적·철리적으로 변하자 문인들은 또 다른 서정문학인 사를 주목하였고, 사에 자신들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소식도 자신의 감정을 시보다는 주로 사로써 전

35) 唐人以詩爲詩, 宋人以文爲詩. 唐詩主於達情, 故於三百篇近, 宋詩主於議論, 故於三百篇遠. 《圍爐詩話》

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시의 형식 중 하나인 제서를 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즉 제서 병기는 소식사의 ‘以詩爲詞’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소식사의 제서를 작품 속 내용이 곧 그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로써 살펴보려 한다.

주지하듯 사는 시와 다르게 사패명과 그에 해당하는 詞譜가 있어 가사를 채워 넣음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 또한 그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 범위는 사패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된다. 沈際飛는 “唐詞는 題(여기서는 사패)에 따라 지은 것이 많아서 <臨江仙>은 신선의 일을 말하고 <女冠子>는 女道士의 자태를 서술했으며 <河瀆神>은 祠堂을 읊었으니 대체로 本題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뒤에 점차 변하여 題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³⁶⁾ 차주환의 《中國詞文學論考》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詞는 본래 樂曲의 歌詞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연히 詞調名과 符合하거나 그것과 近似한 것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唐·五代에 거쳐서 지어진 諸家의 사에는 사조명 이외에 따로 題序를 부치는 예는 극히 稀少했다.” 이처럼 소식 이전의 사들은 사패명과 사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북송에 들어서야 사패명 밑에 제서를 병기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인들이 종종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서를 병기했던 詞人 수나 작품 편수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아직까지 작은 시도에 불과했다. 《全宋詞》에 작품이 수록된 사인 중 소식 직전까지의 사인은 모두 105명인데 이들 중 제서가 있는 사를 2수 이상 쓴 사람은 23명뿐이다. 다시 이 23명 중 5수 이상을 쓴 사람을 골라보면 范仲淹과 晏殊가 5수, 柳永과 歐陽脩가 10수, 張先이 65수 등 8명에 불과하다.³⁷⁾ 한편 소식의 사 창작에 가장 큰 영

36) 唐詞多述本意, 有調無題, 如 <臨江仙> 賦水媛江妃也, <天仙子> 賦天台仙子也, <河瀆神> 賦祠廟也, <小重山> 賦宮詞也, <思越人> 賦西子也. (清 王奕清等, 《御選歷代詩餘》卷112 <詞話>) (류종목, 《蘇軾詞研究》, p. 309. 주석 3번 재인용)

37) 류종목, 위의 책, p. 310-311.

향을 미쳤던 장선의 경우에는 65수의 詞題가 있어 눈여겨 볼 만하며, 그 가운데는 詞序로 간주될만한 긴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장선이 이전 사인들과 소식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에 제서를 짓는 풍조는 소식에 와서야 정착되고 크게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제서의 병기는 소식이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사의 소재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다. 소식은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패명이나 사조에 관계없이 填詞하곤 했다. 이 때문에 소식사는 사패명과 사의 내용 간의 긴밀성이 느슨해지게 되었다. 이에 그는 본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사를 짓는 창작동기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청자·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소식의 편년사 292수 중 제서가 병기된 작품은 258수가 있으며, 이는 약 88%에 해당한다. 즉 소식의 사 작품 대부분에 제서가 첨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⁹⁾ 결과적으로 제서는 소식 스스로가 이 사를 짓게 된 연유, 혹은 창작의도를 쓴 것이기에 그의 삶과 밀착된 생활경험과 감정을 사로 써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소재로 삼는 소식의 사 창작태도로 인해 소식사의 제서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정 계절의 풍경을 보고 감흥이 일어 지었다는 제서가 있는가 하면, 超然臺나 臨臯亭과 같은 특정 장소에 머무르다 짓게 되었다 한 것도 있고, 연꽃이나 매화를 보고 작사하였다는 제서도 있다. 또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혹은 지인을 회롱하려고 지었다는 제서도 있으며, 명절을 맞아 느낌이 있어 사를 지었다는 제서가 붙은 작품도 있다.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창작 동기를 설명하는 제서 가운데 유의미한 수량을 지니고 있어 분류할

38) 차주환,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65 참조.

39) 사조명과 부합 내지 근사한 내용의 사는 이른바 本意詞다. 《花間集》에는 사조명 이외에 제서를 붙인 것은 하나도 없다. 《尊前集》에는 사조명 밑에 궁조명을 쓴 것이 많고 제서는 없다. (차주환, 같은 책, p. 64-65, 35번 주석 재인용)

만한 제서들이 보인다. 바로 ‘送迎’, ‘贈’, ‘寄·和答’과 관련된 제서들이다.

먼저, ‘送迎’은 소식사 가운데 지인과 헤어지거나 만나서 혹은 정든 곳을 떠나게 되어서 느끼는 생각과 감흥을 작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제서들이다. 본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이 같은 상황설명이나 창작동기를 ‘送’, ‘別’, ‘迎’자를 넣어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제서가 병기된 소식사로는 제서가 병기된 258수 중 38수가 있으며, 이는 전체 제서의 약 1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贈’은 본 작품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썼음을 나타낸 것으로 제서가 병기된 258수 중 21수가 있으며⁴⁰⁾ 8%에 달한다. 보통 ‘贈’자 뒤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이 나오기 때문에 소식이 평소 어떤 이들과 교유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寄와 和, 그리고 答이 있다. 소식사 중에는 편지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들이 적지 않은데, 제서에 ‘寄’, ‘和’, ‘答’자가 들어간 작품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특이한 것은 이전 지식인들은 詩를 가지고서만 서로 唱和하였는데, 소식에 이르러서 사를 가지고도 唱和하는 풍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사로 唱和하는 것은 張先 때 처음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39세 때 杭州通判에 재임할 당시 杭州에 은퇴해 있던 詞壇의 원로 장선과 교유하며 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詞作에 있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장선이 시도했던 ‘사의 唱和’는 소식에 이르러 기틀이 잡히고 발전하여 하나의 기풍을 이루게 되었다. 제서를 통해 唱和한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사는 제서가 병기된 그의 사 258수 중 26수에 달하며, 이는 전체 제서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역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서를 통해 그 사가 누구에게 주기 위해 지어진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唱和하려 하는 것인지 등의 창작동기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서는 소식사가 곧 소식의 삶이라는 것을 증

40) ‘遺’자가 들어간 〈滿庭芳(歸去來兮)〉 1수도 여기에 분류해 넣도록 한다.

명해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제서가 병기된 작품 몇 수를 보기로 든다.

〈菩薩蠻〉

-西湖送述古-

秋風湖上蕭蕭雨。使君欲去還留住。今日漫留君。明朝愁殺人。
佳人千點淚。灑向長河水。不用斂雙蛾。路人啼更多。

-서호에서 진술고를 보내며-

가을바람 호수 위에 찬비를 뿌리는데
태수께선 떠나려다 다시 또 머무시네.
오늘 그대 붙잡아도 쓸데없다네
내일이면 근심으로 애가 끊길 것이니.

가인은 눈물을 천 방울이나
기다란 강물 위에 뿌릴테지만
더듬이 같은 두 눈썹을 찡그릴 것 없다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더욱 많이 울 테니.

이 사는 희령 7년(1074) 7월 항주 서호에서 陳襄이 항주지주 임기를 마치고 應天府(지금의 하남성 商丘) 지주로 부임하게 되자, 그를 위해 송별연을 벌일 때 지은 것이다.⁴¹⁾ 정든 지인과 헤어지고 있는 장면을 노래하면서 주변의 차갑고 서늘한 배경과 더불어 자신의 슬프고 서운한 마음을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서가 짧긴 하지만 사 작품을 감상하기 앞서

41) 류종목 역해, 《소동파사》, p.84 번역 및 해설 참조.

이후에 예시하는 소식사의 원문과 번역 및 창작시기 설명은 같은 책을 참고 하였음.

대강의 작사 배경과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清平樂〉

-送述古赴南都-

清淮濁汴，更在江西岸。紅旆到時黃葉亂。霜入梁王故苑。
秋原何處攜壺。停驂訪古踟躕。雙廟遺風尚在。漆園傲吏應無。

-진술고가 남도로 부임해 가는 것을 전송하며-

맑은 회수 흐린 변수 다 지나서
다시 강의 서쪽에 가 계시리.
붉은 깃발 도착할 때 누런 낙엽 흩날리고
서리는 양효왕의 옛 동산을 찾아들리.

가을 들판 어디론가 술병 들고 나가고
수레를 세우고 고적을 찾아 서성이겠지.
쌍묘의 유풍은 아직도 있으련만
כות대 높은 칠원리는 있을 리가 없겠지.

이 사 역시 위의 〈보살만〉과 같은 시기에 쓰인 것으로, 진양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지은 것이다. 전결에서는 진양이 남도로 가는 과정을 상상하였고, 후결에서는 진양의 남도에서의 생활을 상상하였다. 헤어진 뒤 상대방의 앞날까지 그려보는 소식의 행동에서 이별의 아쉬움이 짙게 느껴진다. 진술고를 전송하며 썼다는 제서가 병기된 사를 소식이 5수나 지은 것으로 보아 그와의 석별의 정이 꽤 깊었던 듯하다. 역시 제서를 통해 떠나는 사람과 남은 사람은 누구인지, 또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대강의 상황을

알 수 있어 본 작품을 감상하는데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역시 소식이 실제 인물과 상황을 바탕으로 이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浣溪沙〉

-贈閻丘朝議，時過徐州-

一別姑蘇已四年。秋風南浦送歸船。畫簾重見水中仙。
霜鬢不須催我老。杏花依舊駐君顏。夜闌相對夢魂間。

-서주에 들른 여구효종 조의대부께-

고소 땅을 떠나온 지 이미 네 해째
가을바람 남포에서 귀환선을 보내느라
오색 주렴 안에서 수중 신선을 다시 한 번 뵈는군요.

흰 살쩍까지 더 이상 내 늙음을 재촉할 필요 없는데
살구꽃은 예전대로 그대 안색을 고정시킨 채
깊은 밤에 꿈속인 듯 마주보고 앉았군요.

이 사는 희령 10년(1077) 8월 소식이 徐州知州에 재임할 당시, 徐州에서 朝議大夫 閻丘孝終을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여구효종은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蘇州에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이 있어서 서주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역시 제서만 보고서도 여구효종 조의대부라는 인물이 서주에 들러서 소식이 그에게 사를 써준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소식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소재로 사를 지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卜算子〉

-自京口還錢塘，道中寄述古太守-

蜀客到江南，長憶吳山好。吳蜀風流自古同，歸去應須早。
還與去年人，共藉西湖草。莫惜尊前仔細看，應是容顏老。

-경구에서 전당으로 돌아가는 도중 진술고 태수께-

축지방의 나그네가 강남에 와서
오산의 멋진 모습 늘 생각했답니다.
오와 축은 예로부터 풍류가 한가지니
서둘러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 지난해의 정든 친구와
서호의 풀밭에 함께 앉아 놀립니다.
술자리서 자세히 보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굴은 으레 누구나 늙게 마련이니깐요.

이 사는 희령 7년(1074) 3월 당시 杭州通判이던 소식이 京口(지금의 강소성 鎮江)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항주로 돌아오며 지은 것이다. 항주지주 陳襄에 대한 그리움과 우애를 드러냄과 동시에 은연중 인생무상의 안타까운 심정도 나타냈다. 제서를 통해 이 작품이 허구의 상황 하에서 거짓 감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구에서 전당으로 돌아가던 중 진술고에게 부치기 위해 쓴 詞임을 알 수 있다.

〈南鄉子〉

-和楊元素，時移守密州-

東武望餘杭。雲海天涯兩杳茫。何日功名遂了，還鄉。醉笑陪公三萬場。
不用訴離觴。痛飲從來別有腸。今夜送歸燈火冷，河塘。墮淚羊公却姓楊。

-밀주지주로 옮기게 되었을 때 양원소에게 화답하여-

동무에서 멀리 여항을 바라보면
운해 너머 하늘 끝에 들이 까마득하겠군요.
언제나 공명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
공을 모시고 삼만 차례 술에 취해 웃을까요?

이별의 술잔은 사양할 것 없어요
술배는 예로부터 따로 있으니까요.
돌아가시는 모습 전송하고 나면 등불도 썩을 이 밤
강독에 서서
羊公 대신 楊公을 위해 눈물 흘리겠군요.

이 사는 희령 7년(1074) 9월 소식이 楊繪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지은 것이다. 지금까지 동행한 양회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석별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上片에서는 同鄉 사람인 양회에게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 매일 만나 함께 술잔을 나누며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下片에서는 함께 이별주를 마시며 헤어짐을 슬퍼하고 있다. 제서를 통해 항주통판으로 있던 소식이 밀주지주에 임명되어 그곳으로 가던 길에 그를 전송하러 나와 준 신임 항주지주 양회에게 화답하기 위해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소식의 실제 삶과 작품의 내용이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접련화-늦은 봄에 이공택과 작별하며(接戀花-暮春別李公擇)>, <완계사-미산현령을 지낼 때 명성이 자자했던 해주지주 진씨에게(浣溪沙-贈陳海州. 陳嘗爲眉令, 有聲)>, <보살만-항주 기녀가 신임 태수 양원소를 맞으러 소주로 가매 소주태수 왕규보에게 부친다(菩薩蠻-杭妓往蘇迓新守楊元素, 寄蘇守王規父)>, <점강순-기사년 중양절에 소견에게 화답하여(點絳脣-己巳重九和蘇堅)>, <체인교-방직을 희롱하여(殢人嬌-戲邦直)>, <일총화-초봄에 앓고 일어나(一叢花-初春病起)>, <영우락-서주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 북쪽으로 연자루에 올라서(永遇樂-徐州夢覺, 北登燕子樓作)>, <남향자-술자리에서 이공택에게 술을 권하며(南鄉子-席上權李公擇酒)>, <완계사-양주에서 작약과 앵두를 구경하고(浣溪沙-揚州賞芍藥櫻桃)>, <만정방-벼슬을 버린 지 33년이 된 왕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주 사람들이 그를 왕선생이라고 불렀다. 진조를 전송하러 왔다가 나에게 들렀으므로 이 사를 짓는다(滿庭芳-有王長官者, 棄官三十三年, 黃人謂之王先生. 因送陳慥來過余, 因賦此)> 등의 제서를 통해 소식사가 실제 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식 사의 제서 병기에 관해 류종목은 《蘇軾詞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作詞의 배경이나 동기를 밝힌다는 것은 사가 沒個性的이고 千篇一律적인 성격을 벗어나 지식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서술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뜻한다.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개성적인 작품은 청자나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共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보편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 題序는 바로 이 감정의 보편화를 위한 注釋的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어느 경우보다도 자아와 개성이 뚜렷한 소식 사에 있어서 제서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소식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의 일화와 실제로 떠오른 생각 및 감정을 바탕으로 사를 지었다. 이로 인해 대중적이던 사는 지극히 개인

적인 사가 되었다. 이에 소식은 감상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서 병기를 근면히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소식의 삶과 소식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식의 생애와 소식사의 창작년도를 대비해가며 한 작품씩 감상하다 보면 작자의 삶과 작품이 포개어지면서 창작 당시 작자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작자와의 교감이 극대화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소식의 일상생활을 노래한 소식사는 한편 한편이 사연과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들은 단편적·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의 옴니버스식 드라마 같이 연관성 있는 큰 스토리를 이룬다.

2) 꾸밈없는 眞情性

蘇軾詞의 작품 속 내용은 대부분 꾸며낸 허구가 아닌 소식의 實話며, 전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 역시 실재했던 것이다. 또한 소식은 마치 일기를 쓰듯 자신이 겪은 일화와 그에 대한 생각 및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낸다. 여기서 청자와 독자들은 소식의 참모습을 보게 되며, 그의 가식 없는 솔직함과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순수함·소박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서정문학인 사에는 서정과 진정성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소식사에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그 가운데 느낀 실재하는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되는 서정으로 인해 소식사에서는 다른 작품들에서보다 순도 높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는 독자와 작자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게 하며, 감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 같이 소식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꾸밈없는 진정성은 그의 사가 지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2. 1인칭 서정

대부분의 蘇軾詞에서는 작자 소식이 직접 작중 화자로 등장한다. 詩에서는 작자와 작중 화자가 일치하여 작자의 서정이 곧 화자의 서정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시 詞는 연회에서 歌妓들이 부르거나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행가처럼 부르던 것이었다. 따라서 詞人들은 작품을 지을 때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웠으며 작중 상황에 있을법한 허구의 서정을 담아내곤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자와 작중 화자의 일치로 인한 '1인칭 서정'은 소식사가 지니는 독특한 서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보기 위해 柳永의 〈定風波〉와 소식의 〈定風波〉를 함께 예시로 든다. 먼저 유영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定風波〉 - 柳永

自春來，慘綠愁紅，芳心是事可可。日上花梢，鶯穿柳帶，猶壓香衾臥。
暖酥消，膩雲殢。終日厭厭倦梳裹。無那。恨薄情一去，音書無個早。

早知恁麼。悔當初，不把雕鞍鎖。向雞窗，只與蠻箋象管，拘束教吟課。
鎖相隨，莫拋躲。針線間拈伴伊坐。和我。免使年少，光陰虛過。

봄이 온 이후로 푸른 잎 붉은 꽃 보아도
내 마음엔 그저 모든 것이 시들하다.
해님이 꽃 끝에 걸리고
앵무새 버들가지 사이를 나는데
나는 여태껏 이불 덮고 누워 있다.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풀어진 채

종일토록 늘어져 치장하기도 귀찮다.
어이하나 박정한 사람 한 번 떠난 뒤로는
소식 한 자 없으니.

일찍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말고삐를 왜 묶어두지 않았던가.
그런 후에 글방에 난 창을 향하여
아름다운 종기와 상아 붓을 가져다주고
글공부나 하라고 붙잡아 두는 건데.
날 버리지 못하도록 언제나 함께하면서
한가히 바느질거리 잡고 그이 곁에 있을 것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젊은 시절 허송하지 못하게 할 것을.⁴²⁾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낸 여성 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을 봐주는 임이 없으니 치장하기도 귀찮고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그를 그리워할 줄 알았으면 임을 떠나보내지 말고 옆에 꼭 붙잡아 놓을 걸’ 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렇듯 유영의 〈정풍파〉는 작자가 직접 화자로 나서지 않고, 대신 타인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허구의 내용을 가지고서 보편적인 이별의 슬픔을 그려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 까닭에 작품 전체적으로 섬약한 느낌이 든다. 아래에서는 소식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定風波〉 - 蘇軾

-余昔與張子野·劉孝叔·李公擇·陳令舉·楊元素會於吳興。時子野作〈六客詞〉，其卒章：“盡道賢人聚吳分。試問。也應旁有老人星。”凡十五年，再

42) 박흥준, 《柳永詞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09, p.25-26. 원문 및 번역 참조.

過吳興，五人者皆已亡矣。時張仲謀與曹子方·劉景文·蘇伯固·張秉道爲坐客，仲謀請作〈後六客詞〉-

月滿蒼溪照夜堂。五星一老鬪光芒。十五年間眞夢裏。何事。長庚對月獨淒涼。

綠鬢蒼顏同一醉。還是。六人吟笑水雲鄉。賓主談鋒誰得似。看取。曹劉今對兩蘇張。

-나는 옛날에 장자야·유효숙·이공택·진영거·양소원과 오흥에서 만났었다. 당시 장자야가 〈육객사〉를 지어 그 마지막 장에서 “현인들이 오 땅에 모였다고들 하는데, 어디 한번 물어보자, 그 옆에 노인성도 있어야 되겠는지”라고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흥에 들르니 다섯 사람은 이미 없어졌다. 장중모와 조자방·유경문·소백고·장병도가 좌객이 되었는데 장중모가 나에게 〈후육객사〉를 지을 것을 청했다-

초계를 메운 달이 전당을 비추는 밤
오성과 노인성이 다투어 빛을 내누나.
십오 년 세월이 정말 꿈만 같나니
무슨 일로
태백성은 달을 보며 홀로 처량하였나?

검은 머리와 창백한 얼굴이 함께 취하여
예전처럼 여전히
여섯 명이 물의 고장에서 읊고 웃고 하나니
주객간의 이 말발을 누가 흥내내겠나?
조씨와 유씨가 지금
두 소씨와 장씨를 마주하고 있구나.

이 작품은 題序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張先이 〈육객사〉를 지은 희령 7년(1074)으로부터 15년 후인 원우 4년(1089)에 지어진 것이다. 15년 전에는 六客 중 가장 젊었던 소식이 이제는 가장 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감회와 새로 형성된 後六客에 대한 만남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같은 〈定風波〉를 노래하고 있지만, 위 작품은 앞에서 본 유영사와 달리 가상의 화자를 꾸며내거나 타인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화자로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성 문인 화자가 문인들 간의 교유를 묘사하니 작품 속에서는 호탕함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소식사에는 이전 사들에서 보이던 화려하고 섬약한 느낌은 약해졌으며 대신 쾌활하고 고상한 느낌이 더욱 짙어졌다. 이는 소식이 자신의 실제 삶을 사에 담고 자신을 작중 화자로 세웠기에 뒤따라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식사에서 타인이나 허구적 인물을 화자로 내세운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의 작품에서 자신이 곧 화자로 직접 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삶 자체를 사의 제재로 삼은 것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들러 이야기하거나 적당히 꾸며내는 것보다는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표현하길 좋아하던 그의 성향도 소식사의 '1인칭 서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식사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청자·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또한 작품 안에 그의 자아가 살아 숨 쉬고 있어 생동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식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1인칭 서정의 다양한 양상과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형으로서의 소식

蘇軾에게는 누나 蘇八娘과 남동생 蘇轍이 있었는데, 특히 소철과는 어려

서부터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던 형제이자 둘도 없는 단짝친구였다. 制科를 준비하던 어느 날, 소식은 자신과 동생이 모두 관리가 되어 각자 임지를 떠 돌아다니면 지금처럼 마주앉아 즐겁게 지내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에 소식형제는 일찌감치 은퇴해 함께 오순도순 살자는 '對床夜雨'의 약속을 하였으니 그 각별한 형제애를 짐작 할만하다. 한편 '烏臺詩案'으로 소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소철은 기꺼이 자신의 관직을 내놓으며 형의 救命運動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소식 형제는 지방을 떠돌며 관리를 지낼 때나 각자 폄적되어 고초를 겪을 때나 항상 서로를 걱정하며 애뜻하게 그리워했다.

소식의 編年詞 292수 중 동생 소철과 관련이 있는 사는 총 8수로, 〈沁園春〉(孤館燈青), 〈水調歌頭〉(明月幾時有), 〈畫堂春〉(柳花飛處麥搖波), 〈西江月〉(世事一場大夢)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水調歌頭〉(安石在東海)와 〈滿江紅〉(清潁東流)을 보기로 든다.

〈水調歌頭〉

-余去歲在東武，作〈水調歌頭〉以寄予由。今年，子由相從彭城百餘日，過中秋而去，作此曲以別余。以其語過悲，乃爲和之。其意以不早退爲戒，以退而相從之樂爲慰云耳-

安石在東海，從事鬢驚秋。中年親友難別，絲竹緩離愁。一旦功成名遂，準擬東還海道，扶病入西州。雅志困軒冕，遺恨寄滄洲。

歲云暮，須早計，要褐裘。故鄉歸去千里，佳處輒遲留。我醉歌時君和，醉倒須君扶我，惟酒可忘憂。一任劉玄德，相對臥高樓。

-내가 작년에 동무에서 〈수조가두〉를 지어 자유에게 부쳤었다. 금년에 자유가 팽성까지 따라와 백여 일 동안 나와 함께 지내다가 중추절

을 최고 난 뒤에 떠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나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내가 이에 화답하였다. 일찌감치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물러나서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위안으로 삼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안석⁴³⁾이 동해에 있다가 벼슬길로 나섰을 땐
귀밑털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었네.
중년에는 친구와 헤어지기 어려운 법인데
악기소리가 이별의 슬픔을 덜어줬겠네.
어느 날 아침에 공명을 완수하면
반드시 바닷길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려 했건만
병든 몸을 부축하고 서주문으로 들어갔나니
평소의 생각이 초헌과 면류관에 가로막히매
사무치는 원한을 전원에다 깃들였네.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니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즉
털옷과 가죽옷이 필요하겠네.
고향으로 아득히 천 리 먼 길 돌아가
멋진 곳만 있으면 걸음을 멈추려네.
내가 취해 노래할 땐 자네가 화답하고
내가 취해 쓰러지면 부축해줘야 하네.
취해야만 근심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네.
세상사는 모두 다 유현덕에게 맡기고
우리 둘은 높은 누각에 마주 누워 자세나.

43) 東晉의 정치인 謝安의 字. 그는 은거하다가 마흔 살이 넘어서야 벼슬길에 나아가 淝水에서 前秦 軍사를 크게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

이 사는 소식이 42세 때 지은 것이다. 희령 10년(1077) 8월에 徐州知州로 부임하는 소식을 따라 서주까지 온 소철이 100여 일 동안 소식과 함께 지냈다. 증추절을 지내고 소철이 임지인 開封으로 돌아가면서 〈水調歌頭-離別一何久〉를 지었는데, 소식이 이에 次韻하여 지은 작품이다. 소식은 전결에서 '謝安'이라는 관리가 나랏일을 하다가 결국 중병에 걸리고 평생 꿈꾸던 전원생활도 하지 못한 것을 개탄했다. 이어 후결에서는 동생 소철에게 자신과 함께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서로 의지하면서 젊은 시절 약속했던 대상야우의 꿈을 실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취해 노래할 땐 자네가 화답하고, 내가 취해 쓰러지면 부축해 줘야하네'라는 구절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고픈 소식의 마음이 느껴진다. 작자와 화자가 일치하면서 실제 소식의 생각과 소망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滿江紅〉

-懷子由作-

清潁東流，愁目斷·孤帆明滅。宦游處·青山白浪，萬里重千疊。辜負當年林下意，對牀夜雨聽蕭瑟。恨此生·長向別離中，添華髮。
一尊酒，黃河側。無限事，從頭說。相看恍如昨，許多年月。衣上舊痕餘苦淚，眉間喜氣添黃色。便與君·池上覓殘春，花如雪。

-子由⁴⁴⁾를 그리며-

맑디 맑은 영하가 동쪽으로 흐르는데
근심 속에 한없이 바라보고 있겠구나.
외로운 내 배가 뱃다말다 하는 것을.

44) 동생 蘇轍의 字.

벼슬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노라면
푸른 산과 흰 파도가
만 리에 겹겹이 쌓여 있겠지.
산 속에 은거하려던 그때 그 마음 저버렸구나
마주 누워 쓸쓸한 밤비 소리 듣자던 그 약속을.
한스럽게도 내 인생은
언제나 헤어져 있는 가운데
흰 머리가 느는구나.

한 동이 술을 놓고
개봉에서
끝없이 많은 일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했었지.
서로 바라보던 것 어제 일만 같은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버렸지.
옷 위의 묵은 자국에 쓰라린 눈물이 남았지만
양미간에 기쁨의 징조로 노란색이 늘었으니
그대와 손잡고 연못가에서
남은 봄을 찾노라면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겠지.

이 사는 원우 6년(1091) 8월 소식이 56세 되던 해, 潁州知州로 임명되어 임지로 가는 길에 동생 소철을 그리며 지은 것이다. 조정에서 정적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던 소식은 결국 자신을 모함하던 賈易와 함께 외직을 나가게 되었다. 소철도 이에 외직을 청하였으나 소식 형제에게 의지하고 있던 태황태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주 외임으로 동생과 헤어져 함께 지낼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는 소식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

리로 떠돌며 점점 늙어감에 대상야우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소식의 모습에서 깊은 형제애와 더불어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2) 지아비로서의 소식

蘇軾은 평생 두 명의 부인과 몇 안 되는 시첩을 두었다. 그 시첩들 가운데서는 王朝雲이라는 여인을 주목해 볼 만하다. 먼저 첫 번째 부인 王弗은 至和 원년(1054) 소식에게 시집왔다. 하지만 그녀는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어린 아들 蘇邁를 남기고 요절하고 만다. 생전에 그녀는 정숙하고 지혜로워 효성스러운 며느리 역할과 현명한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왕불이 죽은 지 10년이 되던 해, 소식이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사로 남긴 것을 보면 현숙했던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애뜻함을 지녔던 듯하다. 두 번째 부인인 王閏之는 왕불의 사촌동생으로, 첫째 부인을 잃은 지 3년째 되던 해(1068)에 재혼하여 얻은 부인이다. 왕윤지는 소식에게 시집 와 25년을 함께 하였으며, 46세의 나이로 역시 소식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비록 학식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듯한 성품을 지녀, 소식이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던 여인이었다. 朝雲은 소식이 서른아홉 살(1079) 때 항주통판으로 재임하면서 맞아들인 시첩이다. 그녀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소식을 흠모하여 그의 집안에 들어와 22년 동안 소식과 동고동락 하였다. 두 번째 부인 왕윤지가 죽고 나서는 소식의 부인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소식이 혜주에 유배 갈 때도 험난한 생활을 마다않고 홀로 끝까지 남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런 그녀가 34세의 젊은 나이에 瘴氣를 이기지 못하고 요절하자, 소식은 미안하고 애뜻한 마음에 그녀를 애도하는 시와 묘지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소식의 편년사 292수 가운데 지아비로서 그의 처첩을 노래한 사는 총 11수로, 약 4%에 해당한다. 편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자신의 처첩을 칭찬하거나 그들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사는 이전 작품에서 극히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삶을 함께 하던 자신의 부인들에 대한 감정을 노래했다. 따라서 소식사는 이전 사들이 주로 자기와의 짧은 사랑을 묘사하며 염정적인 서정을 전하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소식은 부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애뜻한 사랑과 그리움을 사 속에 써냈으며, 이 같은 감정을 실제 자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직접 화자가 되어 전달하였다. 따라서 소식사는 여인을 대상으로 작사하더라도 다른 사들과는 차별된, 보다 깊은 진정성과 절절한 감동이 느껴진다. 〈減字木蘭花〉(曉來風細), 〈浣溪沙〉(入袂輕風不破塵), 〈鬢人嬌〉(白髮蒼顏), 〈雨中花慢〉(嫩臉羞蛾因甚) 등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에서는 왕불, 왕윤지, 조운을 노래한 사를 각각 한 수 씩 보기로 한다.

〈江城子〉

-乙卯正月二十日夜記夢-

十年生死兩茫茫，不思量。自難忘。千里孤墳·無處話淒涼。縱使相逢應不識，塵滿面，鬢如霜。

夜來幽夢忽還鄉。小軒窗。正梳妝。相顧無言·惟有淚千行。料得年年斷腸處，明月夜，短松岡。

-을묘년 정월 스무날 밤의 꿈-

이승과 저승으로 떨어진 지 십 년 세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워낙 잊기 어렵다오.
천 리 밖 먼 곳에 외로운 무덤 있어
처량한 심정 호소할 데 없겠구려.
서로 만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게요.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살쩍은 서리처럼 하얗졌다오.

밤 되어 꿈속에서 문득 찾은 고향집
작은 방의 창가에서
그대는 마침 머리 빗고 화장하고 있었지.
서로를 바라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천 줄기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오.
해마다 애간장 끊어지는 곳,
달 밝은 밤
키 작은 소나무가 있는 그 언덕이랴오.

이 사는 희령 8년(1075) 소식이 40세 되던 해, 10년 전에 죽은 본처를 꿈에서 보고 난 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솔직하고 절절하게 드러낸 것이다. 당시 항주에 머물고 있던 소식은 고향에 외롭게 있을 부인의 무덤을 생각하며 왕불을 그리워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소식의 모습에서 따뜻하고 정 많은 그의 성품이 느껴진다. 한편 죽은 아내를 그리는 悼亡詩는 晋代 潘岳(247-300)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나, 悼亡詞는 소식이 처음으로 지은 것이다. 이는 소식이 時流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느끼는 감흥에 입각해 꾸밈없이 사를 지었기에 가능했던 성취라 할 수 있다.

〈蝶戀花〉

-同安君生日放魚，取《金光明經》救魚事-

泛泛東風初破五，江柳微黃，萬萬千千縷。佳氣鬱蔥來繡戶。當年江上生
奇女。

一棧壽觴誰與舉。三個明珠，膝上王文度。放盡窮鱗看圉圉。天公爲下曼
陀雨。

-동안군⁴⁵⁾의 생일날 물고기를 방생하고 《金光明經》 중의 물고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읊는다-

온 천지에 동풍 부는 정월 초닷새
강가의 버들은 누르스름해져서
천 가닥 만 가닥의 실이 하늘거리고
봄기운이 성큼성큼 비단 문을 찾아올 제
그 옛날 강가에 비범한 여자가 태어났네.

장수를 비는 술잔 누구와 함께 드나?
세 개의 야광주요
무릎 위의 왕도문이네.
물 잃은 물고기 다 놓아주고 비실대는 모습 보고 있자니
하늘이 만다라화를 뿌리려 하네.

이는 紹聖 3년(1096) 1월에 두 번째 부인 왕윤지가 죽은 지 3년이 지난해
에 惠州에서 지은 것이다. 고인이 된 왕윤지의 생일을 맞아 독실한 불교 신
자였던 그녀를 위해 소식이 물고기를 방생해 주었는데, 그 후의 감회를 노
래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소식의 존중과 애정을 느낄 수

45) 소식의 두 번째 부인 왕윤지의 封號

있다.

〈三部樂〉

-情景-

美人如月。乍見掩暮雲，更增妍絕。算應無恨，安用陰晴圓缺。嬌甚空只
成愁。待下床又懶，未語先咽。數日不來。落盡一庭紅葉。

今朝置酒強起，問爲誰減動，一分香雪。何事散花却病，維摩無疾。却低
眉。慘然不答。唱金縷。一聲怨切。堪折便折。且惜取。年少花發。

-정경-

미인은 마치 고운 달이
잠깐 나타났다가 또 저녁 구름에 가리워져
더욱 고와지는 것과 꼭 같았었지.
생각해보면 한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흐리고 개고 등글어지고 이지러질 필요가 뭐 있었나?
너무 고우면 공연히 근심만 생기는 법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가 되니
말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목이 먼저 메는구나.
며칠 동안 안 왔더니
온 뜰에 붉은 잎이 가득하구나.

오늘 아침에 술상 보려고 억지로 일어나매
누구 때문에 향긋하고 하얀 두 뺨이
생기를 좀 잃었느냐고 물어보았네.
무슨 일로 꽃 뿌릴 사람이 도리어 병이 나고

유마힐은 병이 나지 않은거나 물어보았네.
그랬더니 도리어 눈썹을 드리우며
애처로운 표정으로 대답을 아니하고
〈금루곡〉을 부르는데
이 한 마디가 너무나 애절했나니
“꺾을 만할 때 꺾으세요.
그리고 또 아끼세요
꽃 피는 젊은 시절”하고 불렀네.

이 사는 소성 3년(1096) 여름, 소식이 61세 때 해주에서 병이 위중해진 시첩 조운을 보고 지은 것이다. 그 해 7월 5일 조운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다. 上片에서는 조운이 처음 소식 집안에 들어왔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면서, 그러했던 그녀가 지금은 병이 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下片에서는 병색이 완연한 조운을 보고서 늙은 나도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병이 났느냐고 탄하고 있다. 조운의 병세를 걱정하는 소식의 애처로운 마음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다.

3) 벗으로서의 소식

蘇軾은 외임과 유배생활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엄연히 歐陽脩의 뒤를 이어 북송 문단을 이끌던 문단의 영수였으며, 남다른 재능과 어질고 소박한 성품을 지녀 생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소식은 다정 다감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께적지에 있을 때조차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이는 소식사 가운데 벗이나 지인들과 관련된 수 많은 작품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벗과의 우정과 그리움, 지인과의 헤어짐과 아

쉬움, 만남의 기쁨이나 함께 하는 즐거움, 인품 칭찬, 그리고 위로나 축하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은 소식의 편년사 292수 중 총 81수로 약 28%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江城子〉(黃昏猶是雨纖纖), 〈蝶戀花〉(簌簌無風花自墮), 〈蝶戀花〉(自古漣漪佳絕地), 〈南歌子〉(衛霍元勳後), 〈減字木蘭花〉(惟態佳夢)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滿江紅〉(天豈無情), 〈點絳脣〉(閒倚胡牀), 〈西江月〉(莫歎平齊落落)을 예시로 든다.

〈滿江紅〉

-正月十三日, 送文安國還朝-

天豈無情, 天也解·多情留客. 春向暖·朝來底事, 尙飄輕雪. 君過春來
紆組綬. 我應歸去耽泉石. 恐異時·杯酒忽相思, 雲山隔.

浮世事, 俱難必. 人縱健, 頭應白. 何辭更一醉, 此歡難覓. 欲向佳人訴
離恨, 淚珠先已凝雙睫. 但莫遣·新燕却來時, 音書絕.

-1월 13일에 조정으로 돌아가는 문안국을 전송하며-

하늘인들 어떻게 무정하리오?
하늘도 다정하게
손님을 붙잡을 줄 아는가 보오.
그렇지 않다면 봄별이 따스해지는
이 아침에 무슨 일로
가벼운 눈이 아직도 휘날리리오?
그대는 봄을 만나 인끈을 차건마는
나는 돌아가 대자연을 즐겨야 할까 보오.
아마도 훗날에 한 잔 술을 마시노라면
갑자기 그대가 그리워질 것이오.

구름에 덮인 산을 사이에 두고 말시오.

부평 같은 세상일들
반드시 생각대로 되기는 어려운 법
비록 건강할지라도
머리는 틀림없이 하얗게 셀 것시오.
다시 한 번 취하는 것 어찌 마다하시오?
이 즐거움 다시 찾기 어려운데 말시오.
고운 입께 이별의 한을 호소하려 하는데
눈물이 먼저 두 눈썹에 영기었다오.
다만 한 가지
새 제비가 돌아올 때
소식이나 끊어지지 않게 해주오.

이 사는 희령 9년(1076) 1월 密州에서 조정으로 돌아가는 文勛을 송별하며 지은 것이다. 上片에서는 하늘이 일부로 눈을 내려 문훈을 떠나기 어렵게 한다고 하면서 그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문훈과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알기에 헤어지고 나면 그가 많이 그리울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下片에서는 둘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관리생활을 하며 점점 늙어갈 것이고, 이에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헤어짐을 무척이나 서운해 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를 염원하는 소식의 모습에서 문훈에 대한 깊은 우정과 진한 석별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전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으며 이별의 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형상을 묘사함으로써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어 깊은 맛이 있다. 46) 이 작품 역시 작자와 작중 화자가 완벽히 일치되면서 마치 소식

이 문훈에게 쓴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點絳脣〉

-杭州-

閒倚胡牀，庾公樓外峰千朵。與誰同坐。明月清風我。
別乘一來，有唱應須和。還知麼。自從添箇。風月平分破。

-항주-

한가로이 호상에 기대앉아 있노라면
유공루 저 너머에 봉우리 천 개 솟았는데
함께 앉아 있는 이 누구였던가?
밝은 달과 맑은 바람 그리고 나였다네.

통판께서 이곳으로 오신 뒤로는
내가 먼저 읊조리면 꼭 화답해 주신다네.
그리고 또 아는가?
한 분이 늘어난 뒤
바람과 달빛을 공평하게 나눈다네.

이 사는 설이 분분하긴 하나, 鄒同慶·王宗堂의 《蘇軾詞編年校註》에 따르면 원우 5년(1090) 항주에서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소식은 조정에서 주요관직을 두루 지내다가 시기와 모함이 끊이지 않는 조정을 뒤로 하고 항주지주로 나와 있었다. 전결에서 소식은 누군가와 담소도 하고 감흥을 나누고 싶으나 그럴 사람이 없어 자연을 벗 삼아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의 모

46) 劉乃昌, 〈一曲陽關情幾許—談東坡寫友情的詞〉 참조. (《東坡詞論叢》, 四川人民出版社, 1982)

습을 그리고 있다. 후결에서는 지주의 보좌관인 항주통판 袁轂이 부임해 오자 그와 함께 지내며 담소하고 시를 읊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역시 작자와 화자가 일치되면서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진실한 감정이 느껴진다.

〈西江月〉

-送錢待制穆父-

莫歎平齊落落，且應去魯遲遲。與君各記少年時。須信人生如寄。
白髮千莖相送，深杯百罰休辭。拍浮何用酒爲池，我已爲君德醉。

-전목보 대제를 전송하며-

제나라를 평정함에 동지가 없다 탄식할 것 없고
노나라를 떠날 때는 천천히 가야 되겠지.
그대와 더불어 제각기 젊은 시절을 기억커니와
인생이란 잠시 깃들었다 가는 것임을 믿어야겠지.

흰 머리가 천 가닥 된 채 그대를 보내나니
큰 술잔에 백 잔도 사양하지 마시게나.
술로 못을 만들어 헤엄칠 필요 뭐 있는가?
나는 이미 그대의 덕으로 흠뻑 취했다오.

이 사는 원우 3년(1088) 9월 開封에서 越州知州로 나가는 錢勰을 전송하면서 지은 것이다. 당시 제나라 땅을 평정하는데 전협의 계획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다는 이유로 동조자가 별로 없었다. 上片에서는 전협이 우국충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월주지주로 나가게 되자 소식을 그를 위로한

것이다. 인생이란 속세에 잠시 기탁했다가 가는 것이므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어서 下片에서는 그의 높은 덕과 인품을 칭송하였다.

벗의 입장에서 쓴 사 중에서는 석별의 아쉬움과 섭섭함을 노래한 작품이 월등히 많다. 소식 이전의 다른 사인들도 이별하는 순간의 슬픔과 그 이후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사 작품을 많이 지었다. 하지만 소식의 사가 그들의 사들과 다른 점은 똑같이 석별의 정을 노래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이 대부분 가기를 비롯한 여성이 아니라 벗이나 知人 등 남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희적이고 일회적인 슬픔과 그리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분위기와 격조도 이전의 이별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소식의 일상생활과 감정이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의 사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관리로서의 소식

蘇軾은 1061년 26세에 제과에 급제하여 1101년 66세에 관직을 사퇴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관리로서의 삶을 살았다. 게다가 그는 1101년 6월에 관직을 사퇴하고 나서 7월에 곧 세상을 떠났으니, 평생을 관리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 중에는 憂國表情과 愛國愛民의 마음을 담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외직의 여유나 정든 임지를 떠나는 아쉬움 및 벼슬살이의 싫증 등 자신의 소소한 관리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영락한 신세의 한과 우수 등 껍적생활을 노래한 사들도 있다. 관리로서의 삶이 녹아나는 소식의 작품들은 편년사 292수 중 총 36수로 약 12%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江城子〉(老夫聊發少年狂), 〈如夢令〉(爲向東坡傳語), 〈千秋歲〉(島邊天外)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1

인칭 서정으로 심리묘사가 탁월한 〈南鄉子〉(涼簟碧紗廚)와 〈如夢令〉(爲向東坡傳語) 두 수를 보기로 한다.

〈南鄉子〉

-自述-

涼簟碧紗廚。一枕清風晝睡餘。臥聽晚衙無一事，徐徐。讀盡牀頭幾卷書。
搔首賦歸歎。自覺功名懶更疏。若問使君才與術，何如。占得人間一味愚。

-자술-

시원한 대자리 깔고 푸른 깃 모기장 치고
베개 가득 산들바람 맞으며 낮잠 잔 뒤끝인데
누워서 들으니 오후의 보고회에 아무 일도 없다가에
쉬엄쉬엄 느긋하게
침대 밑의 책 몇 권을 독파했노라.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가자고 읊조리나니
공명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줄 잘 아는 터
만약에 이 태수의 재능과 학문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는 우둔한 멋을 독점했다 하리라.

이 사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류종목의 《蘇東坡詞》의 해설을 보면 朱本⁴⁷⁾과 曹本⁴⁸⁾은 희령 7년(1074) 9월에 항주에서 지었다고

47) 清 朱祖謀의 《疆村叢書》에 수록된 《東坡樂府》.

48) 曹樹銘, 《蘇東坡詞》(臺北: 商務印書館, 1983)를 가리킴.

하였고, 孔凡禮의 《蘇軾年譜》는 원풍 원년(1078)에 서주에서 지은 것이라 하였다. 저자는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범례의 설이 더 타당해 보이며, 원풍원년 초가을에 서주에서 한가한 시골 태수의 느긋한 생활을 노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평소 자신의 생활을 사 속에 투영하는 소식의 특성상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웠을 서주태수 재임 시 이사를 지었을 확률이 크다고 사료된다. 이 작품에서는 속세의 정치 싸움은 잠시 잊고 한가한 시골 태수의 생활을 즐기는 소식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1인칭 서정을 담고 있어 소식의 생각과 감정이 분명하고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如夢令〉

-寄黃州楊使君二首-(其一)

爲向東坡傳語. 人在玉堂深處. 別後有誰來, 雪壓小橋無路. 歸去. 歸去.
江上一犁春雨.

-황주의 양태수께-(1)

나를 위해 동파에다 말 좀 전해 주오.
이 사람은 깊숙한 한림원에 있다고.
떠나온 뒤 아무도 찾아온 이 없겠구려.
작은 다리도 눈에 덮여 길이 없어졌겠지.
돌아가고 싶소.
돌아가고 싶소.
강가에 쟁기 하나 봄비 맞는 그 곳으로.

이 사는 소식이 翰林學士로 재임 중이던 원우 원년(1086) 겨울에 黃州知

州 楊窠에게 보낸 것이다. 질서와 모함이 난무한 조정과 갑갑한 관리생활에
염증을 느낀 소식은 황주에서의 평화롭고 여유롭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
다. 몸소 개간한 東坡와 雪堂 앞에 있던 작은 다리, 그리고 함께 지내던 사
람들을 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역시 작자
와 작중 화자가 일치하면서 소식의 심리가 솔직하고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
다.

5) 사상가로서의 소식

蘇軾은 儒·佛·道 사상을 모두 수용하였다. 따라서 유교적인 愛國愛民 사
상과 불교적인 世俗超越思想, 그리고 도가적인 隱逸思想을 항상 지니고 있
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소식사 속에 각각 혹은 서로 융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소식의 편년사 292수 중 약 25수가 있으며, 전
체의 약 9%에 해당한다. 〈滿庭芳〉(蝸角虛名), 〈滿江紅〉(東武城南),
〈浣溪沙〉(徐邈能中酒聖賢) 등이 있으며, 〈定風波〉(莫聽穿林打葉聲)와
〈臨江仙〉(夜飲東坡醒復醉)을 보기로 든다.

〈定風波〉

-三月七日, 沙湖道中遇雨. 雨具先去, 同行皆狼狽, 余獨不覺. 已而遂
晴. 故作此詞-

莫聽穿林打葉聲, 何妨吟嘯且徐行. 竹杖芒鞋輕勝馬. 誰怕. 一蓑煙雨任
平生.

料峭春風吹酒醒. 微冷. 山頭斜照却相迎. 回首向來蕭瑟處. 歸去. 也無
風雨也無晴.

-3월 7일 사호로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우비를 가진 사람이 앞서 간지라 함께 간 사람들이 모두 낭패감을 느꼈으나 나만 유독 느끼지 못했다. 얼마 안 있어서 마침내 날이 개었기에 이 사를 짓는다-

숲을 뚫고 잎 때리는 빗소리를 듣지 마라.
소리 내어 읊조리며 천천히 걸은들 어찌랴.
대지팡이에 짚신이 말 탄 것보다 경쾌한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도롱이 쓰고 이슬비에 한평생을 맡기리라.

서늘한 봄바람이 술기운을 날려 보내
몸이 약간 선득한데
산꼭대기 석양이 나를 맞는다.
머리 돌려 좀 전 비바람 치던 곳 바라보면서
돌아가노니
비바람만 있지도 않고 갠 날만 있지도 않다.⁴⁹⁾

이 사는 원풍 5년(1082) 소식이 황주에 유배되어 있을 시기, 황주 교외의 沙湖라는 곳에 농토를 좀 사 두기 위해 땅을 보러 가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다 금방 그친 것을 계기로 지은 것이다. 길을 가던 도중 비가 내리자 다른 사람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는데, 소식은 태연하기만하다. 잔혹하고 냉혹한 정치적 풍파에 다져진 그로서는 이러한 자연의 비바람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⁵⁰⁾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법, 돌고 도는 자연의 이치를 노래하며 자신의 긍정적이고 초연한 인생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49) 朱祖謀, 이동향 역, 《송사 삼백수》, 문학과 지성사, 2011. p.143-144 참조.

50)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신서원, 2005. p.157 참조.

〈臨江仙〉

-夜歸臨臯-

夜飲東坡醒復醉，歸來髣髴三更。家童鼻息已雷鳴。敲門都不應，依杖聽江聲。

長恨此身非我有，何時忘却營營。夜闌風靜縠紋平。小舟從此逝，江海寄餘生。

-밤에 임고정으로 돌아가-

동파에서 밤 술 마셔 께 만하면 또 취하다가
돌아오니 아마도 삼경은 된 듯한데
아이는 벌써 우레같이 코를 골며 자고 있다.
대문을 두드려도 도통 대꾸가 없는지라
지팡이에 기대어 강물 소리 듣는다.

이 몸이 내 것 아님을 항상 한탄하거니와
안달복달하는 생활 언제 벗어나려나?
밤 깊어 바람 자니 비단 무늬 잠잠하다.
작은 배를 잡아타고 이곳을 떠나
강해에다 여생을 맡겨 보련다.

이 사의 창작시기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鄒王本에 따르면 원풍 6년(1083) 4월 황주에서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上片에서는 소식이 東坡의 雪堂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臨臯亭 집으로 돌아왔으나 侍童이 잠들어 들어가지 못하고 강물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했다. 이어서 下片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직 또는 유배지에 따라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와 불안한 자신의 정치적 처지를 한탄하면서, 평생 꿈인 歸隱의 의지를 노래했다. 하루 빨리 초조하고 근심 많은 유배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소식의 심정이 느껴진다. 한편 정치적 풍파에 지치고 상처받은 소식의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작품이다.

6) 전원·자연을 즐기는 한 인간으로서의 소식

蘇軾은 때때로 주변의 한적한 경치를 노래하거나 꽃이나 과일에서 느낀 감흥을 詠物詞로 짓기도 하였다. 또한 계절·기후변화나 명절의 풍경을 보고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평화로운 농·어촌의 생활상이나 자신의 전원생활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식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전원생활을 염원한 사들을 분류해 보면 47수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소식사 중 약 16%에 해당한다. 〈如夢令〉(城上層樓疊巘), 〈定風波〉(好睡慵開莫厭遲), 〈阮郎歸〉(綠槐高柳咽新蟬), 〈望江南〉(春已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好事近〉(湖上雨晴時)과 〈浣溪沙〉(菊暗荷枯一夜霜) 두 수를 보도록 한다.

〈好事近〉

-湖上-

湖上雨晴時，秋水半篙初沒。朱檻俯窺寒鑑，照衰顏華髮。
醉中吹墮白綸巾，溪風漾流月。獨棹小舟歸去，任煙波飄兀。

-호수 위에서-

호수에 비 그치자
가을 호수에 상앗대가 절반이나 잠긴다.
붉은 난간에 기대어 찬 거울을 굽어보니
노쇠한 얼굴과 흰 머리가 물 위에 비친다.

하얀 윤건이 취중에 바람 맞아 떨어지고
계곡에서 부는 바람에 물속의 달이 흐르는데
혼자 노 저어 돌아가는 작은 조각 배
안개 속 파도가 흔들도록 버려둔다.

이 사는 원우 5년(1090) 9월 항주 서호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하는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가을날 홀로 뱃놀이를 하면서 물이 불어난 호수와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달 그림자 등을 묘사하고 있다. 조용한 가을 밤 자연적 정취가 가득한 호숫가의 정경을 즐기는 소식의 모습과 그 가운데 드는 소식의 초연한 심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浣溪沙〉

-詠橘-

菊暗荷枯一夜霜。新苞綠葉照林光。竹籬茅舍出青黃。
香霧噴人驚半破，清泉流齒怯初嘗。吳姬三日手猶香。

-橘-

국화는 은은하고 연꽃은 시들고 밤새 서리 내릴 제
새 꽃망울과 푸른 잎이 숲을 흰히 비추는데

대 올타리 친 초가집에 파란 것과 노란 것이 보인다.

향긋한 안개가 뿔어져 나와 깜짝 놀라 반으로 쪼개니
맑은 샘물이 이 사이로 흘러 맛을 보기 겁나는데
오지방 여인은 사흘이 지나도 손에서 아직 향내가 난다.

이 사는 惠州貶謫 명령을 받고 해주로 옮겨가던 중인 소식 원년(1094) 9월, 廣州에서 처음으로 감귤을 구경하고 맛본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감귤을 처음 대하고서 느끼는 신기함과 낯선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어, 60세 노인이 된 소식의 호기심 어린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소식의 순수하고 소탈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처럼 소식은 작자와 화자가 일치하는 1인칭 서정을 사에 담았기에 그의 생각과 감정 및 심리를 분명하고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청자·독자들은 소식사를 감상하면서 작자의 심정을 보다 분명하고 깊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감상자는 가상의 인물을 통하지 않고 작자와 직접 대면하므로 작자와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보다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V. 소식사의 風格

蘇軾詞에는 맑고 자연스러우며 때로는 생동하고 거침없는 서정이 느껴진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식이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직접 화자가 되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한 까닭에, 그의 性情이 자연히 작품 속에 녹아들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정은 다른 詞人들의 작품과는 다른 소식사 특유의 風格을 형성한다. 風은 風神, 風采, 風姿 등의 속어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전체에서 어울려져 나오는 '美'를 의미한다. 格은 品等 내지 종류를 뜻하는 말이다. 풍격이 美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볼 때, 풍격 연구는 美의 종류 설정과 그 성격의 천명이라 할 수 있다.⁵¹⁾

蘇軾詞의 풍격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분류방법을 제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근래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방법은 明 張綏의 '婉約'과 '豪放'의 이분법적 분류이다. 이는 宋代부터 인식되어 온 전통적인 분류법으로 장연에 와서 체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풍을 정의하자면 婉約詞는 부드럽고 함축적일 뿐 아니라 음률에도 잘 맞는 사이고, 豪放詞는 호쾌하고 웅장한 기상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분방하여 음률의 구속을 거부한 사라고 할 수 있다.⁵²⁾ 송대 이후로 소식은 호방사의 창시자이자 대표자로 불리어 왔으며, 이에 소식사는 곧 호방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와 같은 이분법적 풍격 분류가 소식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호방사의 대표라고 믿어오던 소식의 작품 가운데 실제로 호방한 기운이 느껴지

51)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109 참조.

52) 류중목, 《蘇軾詞研究》, p.203.

는 사는 전체 300여 수 중 많아야 20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식사를 완약한 사풍이라고 규정해야 맞는 것일까. 이 역시 그의 작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한다. 이전의 부드럽고 섬약한 詞와는 분명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소식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인식되자 李素는 〈淺談蘇東坡的詞〉에서 소식사의 풍격을 ‘豪放’·‘婉約’·‘清麗’·‘壯美’·‘疏朗’·‘渾厚’의 혼합과 조화라고 밝혔으며, 曹樹銘은 《蘇東坡詞》에서 ‘豪放’·‘婉約’·‘鋪敘’·‘閒適’·‘白描’·‘瀟灑’·‘戲謔’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또한 柳種睦과 申鉉錫은 ‘豪放’·‘清曠’·‘婉約’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도 ‘豪放’·‘曠達’·‘婉約’·‘清新’, 혹은 豪放 詞 내에서의 ‘曠達’·‘飄逸’ 등 연구자들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풍격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소식사를 분석·감상하면서 맑고 고상한 분위기와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롭게 내달리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는 당시 사 작품들에 비해 소식사에서 유독 농후하게 느껴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식사의 풍격 역시 이에 맞게 ‘清雅’와 ‘放曠’한 면으로 조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실제 인생경험에서 우리나라오는 감흥을 소식 본인이 직접 화자로 나서 노래한 결과, 작품 대부분에 깨끗하고 고상한 그의 性情이 녹아들게 되었고 아울러 남성적인 쾌활함과 시원스러운 기세도 내재하게 되었다. 蘇軾詞에는 ‘婉約’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蘇軾詞는 단지 섬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가운데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기운과 속세에 때 묻지 않은 高潔한 서정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清雅’한 풍격이야말로 蘇軾詞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만의 특별한 서정을 짚어낼 수 있는 사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放曠’은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거침없이 전하며, 그 내용 또한 자유롭게 공활함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청아’와 ‘방광’한 사풍을 지닌 구체적인 작

품들을 예시로 들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1. 清雅

‘清雅’는 蘇軾詞 대부분의 작품에서 매우 농후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청아’한 풍격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清’은 맑고 순수함,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지내는 한적함을 말한다. 내용에서든 형식에서든 소식의 사에서는 가식적·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솔직함과 소박함이 느껴진다. 이는 평소 올곧은 소식의 性情, 그리고 내용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浮艷함을 지양하던 그의 문학 창작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雅’는 인생을 관망하는 성숙함과 탈속적인 高雅함을 말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중압감과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을 견뎌내야 했던 소식의 인생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수양을 통해 현실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고차원적인 그의 인생관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풍파로 굴곡이 많았던 소식의 인생과 그의 곧은 성품, 그리고 삶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성숙한 정신이 잘 융화되어 蘇軾詞에는 ‘청아’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두 글자로 이루어진 24종의 시풍을 설정하고, 이를 운문의 형식으로써 감각적·형상적으로 나타냈다. 사공도의 의견을 빌려 필자가 내세운 청아한 풍격을 논하자면 ‘清’은 ‘清奇’, ‘雅’는 ‘典雅’와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사공도가 제시한 설명을 살펴 보기로 한다.

清奇

娟娟羣松，下有漪流。
晴雪滿汀，隔溪漁舟。
可人如玉，步履尋幽。
載行載止，空碧悠悠。
神出古異，澹不可收。
如月之曙，如氣之秋。

저 멀리 소나무 숲,
그 아래를 흐르는 맑은 시내.
개인 날 물가에는 눈 가득하고,
건너 쪽 시내에는 고기잡이배.
마음에 드는 사람 옥 같은지라
나막신으로 걸어서 깊은 곳으로 그녀를 찾아간다.
가다가 멎다가 하니
공활한 푸른 하늘 아득도 하다.
견잡을 수 없이 예스럽고 기이하니
담담함 그지없다.
달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공기가 가을로 접어든 것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淸奇는 밝은 달·가을 기운 같이 맑고도 독특한 정취를
풍기는 풍격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아름답고 한적한 전원예 문혀 담담하
게 지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즉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는 한적함을 의미한다.

典雅

玉壺買春，賞雨茅屋。

坐中佳士，左右修竹。
白雲初晴，幽鳥相逐。
眠琴綠陰，上有飛瀑。
落花無言，人澹如菊。
書之歲華，其日可讀。

옥 병에 술을 사고
초가집에서 비 구경한다.
좌중엔 좋은 선비
좌우엔 긴 대나무.
흰 구름에 갓 비 개이고
그윽한 새 서로 쫓아다닌다.
녹음에서 거문고 베고 자는데
위에는 흩날리는 폭포가 있다.
떨어지는 꽃 말이 없고
사람은 담담하기 국화 같다.
그것을 한 해의 풍광으로 써 내면
입을 만하다고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공도는 바르고 우아한 풍격인 典雅를 實景에 淡雅한 정취를 곁들여 그려냈다. 53)

즉 청아란 맑고 한적한 정취와 담담하면서도 성숙한 인생관이 묻어나는 풍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청아함이 잘 드러난 소식사 몇 수를 예시로 든다.

53) 차주환, 앞의 책, p.116, p.125 참조/
강재철, 《漢詩文學의 理論과 批評의 實際》,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p.127, p.135 참조.

〈減字木蘭花〉

雙龍對起。白甲蒼髯煙雨裏。疏影微香。下有幽人晝夢長。
湖風清軟。雙鵲飛來爭噪晚。翠颺紅輕。時下凌霄百尺英。

마주보고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하얀 갑옷에 푸른 수염 가랑비 속에 우뚝 서서
얇은 그림자 드리우고 은은한 향기 풍기는데
그 아래 한 은자가 백일몽을 오래 꾸다.

호수에서 부는 바람 맑고 따스한데
까치 한 쌍 날아와 울어대는 저녁나절
푸른 잎은 살랑살랑 붉은 꽃은 팔랑팔랑
이따금 백 자 높이에서 능소화가 떨어진다.

이 사는 희령 7년(1074)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소식이 청순스님의 탈속적인 생활을 부러운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다. 마치 용과 같은 형상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푸른 소나무 두 그루로부터 상쾌한 솔향기가 전해져 오는 듯하다. 호수와 맑은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잎과 흩날리는 붉은 꽃 가운데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는 은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티 없이 깨끗하고 자연스러우며 한가로운 정취를 자아내는 한편, 세속 초월을 동경하는 소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鷓鴣天〉

林斷山明竹隱牆。亂蟬衰草小池塘。翻空白鳥時時見，照水紅蕖細細香。
村舍外·古城旁。杖藜徐步轉斜陽。殷勤昨夜三更雨，又得浮生一日涼。

숲 끊어져 흰한 산에 대나무가 담장을 뒤덮은 집
연못에 매미는 요란하고 풀은 시들어 가는데
하얀 새는 때때로 허공에서 뒤집고
물에 비친 연꽃에선 향기가 아련하다.

시골집 저 너머의
옛날 성곽 옆에서
지팡이 짚고 어슬렁어슬렁 석양 아래 땀도나니
다정하신 어젯밤의 비님 덕분에
덧없는 인생에 또 하루의 서늘함을 얻었도다.

이 사는 원풍 6년(1083) 6월 황주성 부근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느낀 상쾌한 기분을 노래한 것이다. 대나무의 푸름과 한여름 매미 소리, 그리고 연못에 떠있는 연꽃의 은근한 향기가 어우러져 시각·청각·촉각적으로 깨끗하고 상쾌한 자연 정취가 느껴진다. 이 작품은 소식이 황주에 편적되어 있던 시기에 지어진 것임에도 정치적인 울분이나 한탄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초연하고 평화로운 여유가 느껴진다.

〈浣溪詞〉

-元豐七年十二月二十四，從泗州劉倩叔游南山-

細雨斜風作曉寒。淡煙疏柳媚晴灘。入淮清洛漸漫漫。
雪沫乳花浮午盞，蓼茸蒿筍試春盤。人間有味是清歡。

-원풍 7년 12월 24일 사주의 유천숙을 따라 남산을 유람하며-

가랑비와 산들바람이 새벽 한기 자아내고
안개 속의 성긴 버들은 비 갠 여울에 고운데
회수로 드는 맑은 낙수가 넘실대기 시작한다.

눈빛 거품과 젖빛 꽃이 한낮의 찻잔에 떴는데
여귀 싹과 쭉 순으로 춘반을 차려보았나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게 바로 기쁨이로다.

이 사는 원풍 7년(1084) 12월 泗州에서 유천숙과 함께 도량산에 올라 산뜻한 경치를 구경하며 지은 것이다. 上片에서는 초봄 새벽공기의 청량함이 느껴지며 맑은 강물과 버들이 어우러진 한적한 경치가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다. 下片에서는 한낮에 하얀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는 차와 조출하게 차린 음식에서 기쁨을 느끼는 소식의 모습에서 소박함과 순박함이 느껴진다. 당시 소식은 汝州安置의 명을 받아 침울한 심정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작은 것에서도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의 성숙한 인생관이 돋보인다.

2. 放曠

《說郛》 卷24에서는 俞文豹의 《吹劍續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파가 翰林院에 있을 때 노래를 잘 부르는 幕士⁵⁴⁾가 있었다. 그에게 묻기를 ‘나의 사는 柳永의 사와 비교하며 어떤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

54) 幕士: 궁중의 경호병.

를 ‘柳郎中の 사는 예쁜 17·8세 소녀가 紅牙板을 잡고 ‘버들 강둑·새벽 바람 애잔한 달(楊柳岸·曉風殘月)’을 부르는 것이고, 學士(蘇軾)의 사는 수염난 關西의 우람한 사나이가 銅琵琶와 鐵絃板을 잡고 ‘거대한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네(大江東去)’를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공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⁵⁵⁾

이 문장은 유영을 비롯한 이전의 唯美한 사풍과는 다른 소식사의 放曠한 사풍을 잘 지적하고 있다. ‘放曠’이란 ‘豪放’과 ‘曠達’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서는 호방과 광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豪放

觀花匪禁，吞吐太荒。
由道返氣，處得以狂。
天風浪浪，海山蒼蒼。
眞力彌滿，萬象在傍。
前招三辰，後引鳳凰。
曉策六龍，濯足扶桑。

꽃을 구경하는 것 막지 않으면서
온 누리를 삼켰다 토했다 한다.
도리에 따라 호연지기로 돌아가니
쳐신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천상의 바람 물결처럼 휘몰아치고
바다와 산은 치솟아 있다.
참된 힘 가득 차 있고

55) 東坡在玉堂，有幕士善謳，因曰：“我詞比柳詞何如？”對曰：“柳郎中詞，只好十七·八女孩兒，執紅牙拍板唱‘楊柳岸曉風殘月’。學士詞，鬚關西大漢，執鐵板唱‘大江東去。’”公爲之絕倒。
(吳態和 著，李鴻鎮 譯，《唐宋詞通論》，啓明大學校出版部，1991，p.345-347 참조)

온갖 삼라만상이 곁에 있다.
앞으로는 三辰을 부르고
뒤로는 봉황새 끌어온다.
새벽에 여섯 마리 큰 바다거북 채찍질하여
扶桑에 가서 발을 씻는다.

호방은 호기와 분방함을 뜻하는 말로, 기상이 크고 사소한 절도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작품에 나타난 기상이 장대하고 과장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요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曠達

生者百歲，相去幾何。
歡樂苦短，憂愁實多。
何如尊酒，日往烟蘿。
花覆茆簷，疏雨相過。
倒酒既盡，杖藜行歌。
孰不有古，南山峨峨。

사람 사는 백년에
더 살고 덜 사는 차이가 얼마이라.
환락은 펍이나 짧고
근심은 실로 많다.
어떠한가 한 동이 술 가지고
날마다 안개 낀 송낙 찾아감이.
꽃이 초가집 처마 덮은 데에
성긴 비가 지나간다.
술 기울여 다해 버리면
명아주 지팡이 짚고 걸어가며 노래한다.

사람이야 누구인들 옛 사람 안 되랴만
남산은 언제나 높이 솟아있구나.

광달은 마음 내키는 대로 自適하고 사물에 구속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인생의 속절없음과 술과 유유자적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광달을 글자 그대로 풀면 가슴속의 집착이나 선입견 없이 공활하게 비어 있어 세상 이치에 통달함을 뜻한다.⁵⁶⁾

이처럼 ‘放曠’한 사풍을 지닌 작품은 蘇軾詞 가운데 약 20여 편 정도가 있다. 결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화려하고 섬약했던 당시 詞壇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풍인 만큼, 방광한 풍격은 소식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리로서의 사명감과 우국충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사내다운 면모와 기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포함된다. 아래에 예시로 작품 몇 수를 든다.

〈陽關曲〉

-贈張繼愿-

受降城下紫髯郎。戲馬臺南舊戰場。恨君不取契丹首。金甲牙旗歸故鄉。

-장계원에게-

수항성 밑에 있던 털보 장수가
희마대 남쪽의 옛 전장에 있구나.
한스럽다 그대가 거란의 목을 베어
황금 갑옷 상아 깃발로 금의환향 못함이.

56) 차주환, 앞의 책, 2003, p.120-121, p.132-133.

이 사는 원풍 원년(1078)에 徐州에서 지은 것으로 전방에 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전공을 세워야 할 張繼愿이 후방인 서주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다. 편폭은 짧지만 자연스러우며 소식의 사내다운 기세와 우국충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定風波〉

-重陽括杜牧之詩-

與客携壺上翠微。江涵秋影雁初飛。塵世難逢開口笑。年少。菊花須插滿頭歸。

酩酊但酬佳節了。雲嶠。登臨不用怨斜暉。古往今來誰不老。多少。牛山何必便沾衣。

-중양절날 두목지의 시를 개작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들고 푸른 산에 올랐더니
가을 풍경 강에 잠기고 기러기도 날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입 벌리고 웃을 일 잘 없는 법
나이 한창 젊었을 때
머리에 국화를 잔뜩 꽂고 돌아가야 한다네.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명절에 보답하면 그만이지
구름이 걸려 있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해 저문다 원망할 것 없다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늙은 사람 그 누구리?
안 늙은 사람이 얼마나 되리?
우산에서 옷깃을 적실 필요 어딤으리?

이 사는 원풍 3년(1080) 9월 9일 황주에서 黃州知州 徐大受를 따라 등고 행사를 하면서 杜牧의 칠언율시 〈九日齊山登高〉를 〈定風波〉 곡조에 맞게 개작한 것이다. 구름이 걸릴 정도로 높은 산의 우뚝함과 더불어, 머리에 국화를 잔뜩 꽂고 호탕하게 술에 취하고자 하는 소식의 모습에서 어디에도 없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이 느껴진다. 한편 세월의 흐름과 늙어가는 것에 대한 초연함을 노래한 마지막 구절에서는 호쾌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念奴嬌〉

-赤壁懷古-

大江東去，浪淘盡，千古風流人物。故壘西邊，人道是·三國周郎赤壁。亂石穿空，驚濤拍岸，捲起千堆雪。江山如畫，一時多少豪傑。

遙想公瑾當年，小喬初嫁了，雄姿英發。羽扇綸巾，談笑間·強虜灰飛煙滅。故國神游，多情應笑我。早生華髮。人間如夢，一尊還酹江月。

-적벽에서의 옛날 생각-

장강은 도도하게 흘러흘러

모두 쓸어갔도다

천고의 영웅호걸들을.

옛날 보루 서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 주량의 적벽이란다.

빠죽한 바윗들은 하늘을 찌르고

깜짝 놀란 파도는 강 언덕을 두들기며

천 무더기 눈더미를 말아 올린다.
그림 같은 이 강산에
한때에 호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득히 떠오르는 주유의 그때 모습
아리따운 소교가 막 시집오고
웅장한 자태에서 영기를 뿜었겠지.
손에는 깃부채 들고 머리엔 윤건 쓰고
담소하는 사이에
막강한 군함 재가 되어 날아가고 연기 되어 사라졌지.
적벽을 거닐며 옛일을 회상하노라니
정이 많은 내가 참으로 우습구나
이렇게 일찍 머리 세어 버린 내 모습.
인생은 꿈같은 것
술 한 잔 들어 강 속의 달님에게 부어주노라.

이 사는 원풍 5년(1082) 7월 黃州에 있는 적벽에서 삼국시대에 있었던 적벽대전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삐죽삐죽한 험한 바위와 용솟음치는 강물이라는 자연적 배경, 그리고 역사 속 영웅들이 지혜와 대담함으로 막강한 적을 크게 물리치는 상상에서 남성적인 기개와 웅혼한 기상이 느껴진다. 한편 마지막 구절에서 그 영웅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무력감이 드러나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시공간이 광활하며 예속되거나 막힘이 없다.

이처럼 蘇軾詞가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데는 소식만의 독특한 句法도 한몫 거든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문학을 창작함에 있어 예술형식도 중시했으나, 내용전달을 위해서라면 형식적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사 창작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의

구법은 詞調에 따라 각기 字數나 句讀 등의 일정한 句式이 있다. 북송 초기의 시인들은 대부분 음악적인 면에 치중하여 사를 지었기 때문에 같은 사조에 구법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식은 사의 音律에 크게 구속받지 않았으며, 사의 내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박자에 따라 구법을 정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구를 나누었다.⁵⁷⁾ 소식은 자연스러운 내용전개나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고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소식사가 역대로 많은 詞評家들에 의해 음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詞다운 맛을 감소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청조를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시로써 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사는 반드시 ‘따로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別成一家)’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식사에 대해 구절이 가지런하지 않은 시일 뿐이며, 음률도 조화롭지 않다고 혹평한 바 있다. 하지만 소식사를 옹호하고 높이 평가하는 견해들도 없지 않다. 다음은 각각 宋代의 詞人인 晁補之와 陸游의 말이다.

居士의 詞는 사람들이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의 사는 橫放傑出하여 워낙 曲子 속에 묶어 둘 수 없는 것이다.⁵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東坡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사는 音律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하지만 晁以道(說之)가 ‘紹聖(1094-1097)초에 동파와 汴水에서 작별했는데 술이 얼큰해져 자 스스로 〈陽關曲〉을 노래 불렀다’라고 한 것을 보면 공은 노래를 부를 줄 모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 豪放하여 마르고 잘라서 음률에 맞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다.⁵⁹⁾

57) 신현석, 앞의 논문, p.65-66 참조.

58) 居士詞, 人謂多不諧音律. 然橫放傑出, 自是曲子內縛不住者.(清 張宗樞, 《詞林紀事》卷5)(류종목, 《蘇軾詞研究》, p.201. 주석 20번 재인용)

59) 世言東坡不能哥歌, 故所作樂府, 多不協律. 晁以道謂: ‘紹聖初, 與東坡別于汴上, 東坡酒酣自歌〈陽關曲〉.’ 則公非不能歌, 但豪放不喜剪裁, 以就聲律耳.(清 王奕清, 《御選歷代詩餘》卷115)(《詞話叢編》

아래에서는 소식만의 독특한 구법으로 쓰인 작품들을 예시로 보려고 한다. 먼저 소식의 특이한 구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念奴嬌〉(大江東去)를 든다. 이 작품의 구법에 대해 清代 萬樹는 《詞律》卷16에서 ‘이것은 〈염노교〉의 別格이다(此爲〈念奴嬌〉別格)’라고 하였으며, 王奕清은 《御製詞譜》卷28에서 ‘宋元人 중에 이렇게 填詞한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앞의 사(〈念奴嬌〉(憑高眺遠)를 가리킴)를 譜로 삼는다(宋元人, 如此填者甚少. 故以前詞作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두 사를 비교해 보면 구법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각 작품의 전·후결 2,3,4,5구는 다음과 같다.

(憑高眺遠)(正格)

전결: 見長空萬里, 雲無留迹. 桂魄飛來光射處, 冷浸一天秋壁.

(5, 4, 7, 6)

후결: 舉杯邀月, 對影成三客. 起舞徘徊風露下, 今夕不如何夕.

(4, 5, 7, 6)

(大江東去)

전결: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 人道是`三國周郎赤壁.

(3, 6, 4, 3·6)

후결: 小喬初嫁了, 雄姿英發. 羽扇綸巾, 談笑間`強虜灰飛煙滅.

(5, 4, 4, 3·6)

〈念奴嬌〉(大江東去)의 뜻을 해석하면 ‘그 물결이 모두, 천고의 영웅호걸들을 쓸어 갔도다. 옛날 보루 서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 주량의 적벽이란대.’인데, 사보의 구법에 따라 ‘浪淘盡千古, 風流人物. 故壘西

p.1235)(류종목, 같은 책, p.202. 주석 21번 재인용)

邊人道是，三國周郎赤壁.’으로 띄어 읽으면 그 의미가 난해해진다. 따라서 이 작품은 소식이 음률적인 부분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지은 까닭에 구법이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상을 그린 소식의 〈漁父〉 4수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구법을 볼 수 있다. 본래 당·오대 이래로 〈어부〉사의 정격은 ‘7.7.3,3.7.’ 혹은 ‘7,7.3,3.7.’이었는데, 소식의 〈漁父〉(漁父飲), 〈漁父〉(漁父醉), 〈漁父〉(漁父醒), 〈漁父〉(漁父笑)에서는 모두 ‘3,3.6.7,6’ 구법을 쓰고 있다. 이 역시 소식이 내용과 감정의 전달을 중점으로 두고 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⁶⁰⁾

소식의 사 〈滿江紅〉 4수 중 각각의 후결 7번째 구를 살펴보면 글자 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天豈無情) 欲向佳人訴離恨 (7)
- (東武城南) 君不見`蘭亭修禊事 (8)
- (江漢西來) 不獨笑書生爭底事 (8)
- (清潁東流) 衣上舊痕餘苦淚 (7)

《御製詞譜》에 따르면 본래 〈만강홍〉의 7번째 구는 7자가 정격이며, 8자구는 소식 사에서만 볼 수 있다.⁶¹⁾ 이를 통해 소식은 내용의 자연스러운 전달을 위해서라면 구법의 끊어 읽기뿐만 아니라 글자 수의 제한에도 융통성 있게 填詞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水龍吟〉(似花還似非花), 〈鬢人嬌〉(白髮蒼顏), 〈少年遊〉(去年相送), 〈八聲甘州〉(有情風萬里卷潮來) 등의 작품에서도 원래 사보나 다른 사인들의 사와는 다소 다른 독특한 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60) 류종목, 《蘇軾詞研究》, p.359 참조.

61) 신현석, 《東坡詞研究》, p.67 참조.

이와 같이 통상적인 구법과는 다른 구법을 전개하는데 개의치 않았던 소식은 음률에 정통하지 못한 사인이라는 의혹과 함께 사의 음악성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소식이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서들이 분명 존재한다. 단적인 예로 소식 사 〈醉翁操〉의 제서를 들 수 있다.

낭야산의 깊숙한 계곡은 산천이 기이하고 아름다운데 텅 빈 계곡에서 샘물소리가 울려 마치 음률에 잘 맞는 것 같다. 취옹은 그것을 좋아하여 술잔을 들고 내려다보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흐뭇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었다. 그 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여년, 호기심 많은 선비 심준이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유람한 뒤에 거문고로 그 소리를 묘사하여 〈취옹조〉라고 명명한 곡조는 절주가 시원스럽고 소리에 담긴 취지가 잘 드러나 거문고를 아는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여기는데 안타깝게도 곡조만 있고 가사가 없다. 취옹이 비록 그 곡조에 가사를 짓기는 했으나 거문고와 어울리지 않으며, 또 취옹이 초사 형식을 빌려 〈醉翁人〉을 짓고 호사가가 그것을 바탕으로 곡조를 지은 것도 있어 대체로 그 운치와 어울리기는 하나 거문고 소리가 가사의 제약을 받아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뒤로 30여 년이 지나 취옹도 세상을 떠나고 심준도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 거문고의 묘수인 여산의 옥간도인 최한이 이 곡조에 가사가 없는 것을 늘 한탄하다가 그 소리를 채보하여 동파거사에게 청하기에 가사를 보충한다.

소식이 거문고와 음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었다면 거문고 소리에 가사를 붙이는 일을 부탁 받을 일도 없었을 뿐더러, 이 작품을 작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소식 사 중 어떤 작품은 詞評家들에 의해 음률이 잘 맞는 것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戚氏〉(玉龜山)에 대해 萬樹는 《詞律》卷20에서 ‘사람들이 坡公의 사는 음률에 맞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이와 같은 장편에 있어서 글자 한 자도 허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찌 항상 음률에 맞지 않았겠는가!(人每謂坡公不協律, 試觀如此長篇, 字字不苟, 何常不協乎.)’라고 하였다. 또 宋代 沈義父는 《樂府指迷》에서 ‘근세의 작사자는 음률을 모르기 때문에 고의로 호방하고 거침없는 말을 하고는 東坡나 家軒 같은 諸賢을 빙자하는데 諸賢의 사는 과연 호방하지만 호방하지 않은 곳은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近世作詞者, 不曉音律, 乃故爲豪放不羈之語, 遂借東坡·稼軒諸賢自諉. 諸賢之詞固豪放矣, 不放處未嘗不協律也.)’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소식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기존 형식에 어긋나는 구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형식적인 부분을 융통성 있게 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 소식사의 영향

蘇軾은 詞를 짓는데 있어서도 내용을 중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로 인해 소식사에는 ‘스토리가 있는 서정’과 ‘1인칭 서정’이 담기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清雅하고 放曠한 사풍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남다른 개성이 묻어나는 蘇軾詞는 천편일률적이던 당시 詞壇의 새 기풍을 열었으며, 이후 많은 사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 소식사의 영향은 清代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사인들과 소식사의 영향관계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宋代 사인들에 한해 소식사의 영향을 고찰해 보려 한다. 앞에서 살펴 본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과 청아·방광한 사풍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가로 南宋의 姜夔와 辛棄疾을 고찰하고, 그 이후의 사인들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려 한다.

1. 姜夔

南宋 姜夔(1155-1221)의 사는 辛棄疾의 창작 연대와 비슷하지만, 신기질과는 다른 사풍을 지니며 남송 후기 사단의 중요한 한 詞派를 형성하였다.⁶²⁾

강기의 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小序다. 이는 소식의 題序 併記 경향을 계승해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식사의 경우 본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시간이나 장소 및 창작동기 등을 밝힌 짧은 序가 병기

62) 吳態和 著, 李鴻鎮 譯, 《唐宋詞通論》,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425 참조.

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사건을 기술하거나 풍경을 묘사한 비교적 긴 序도 있다. 그 이후 제서를 쓰는 시인들은 많아졌지만, 소식처럼 제서를 통해 감정이나 뜻을 전달하는 작품은 드물었다. 이는 강기에 이르러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다.

강기의 현존하는 사는 약 84수로, 3수를 제외한 81수에 모두 제서가 병기되어 있다. 그 중 長序가 31수이며, 詞題를 포함한 短序는 50수에 이른다. 강기사의 제서 내용은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 및 창작동기를 소개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정취를 묘사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며, 序와 詞의 감정상 연관성이 매우 긴밀해졌다.⁶³⁾ 아래에서 강기사 몇 수를 예시로 든다.

〈踏莎行〉

-自沔東來，丁未元日，至金陵，江上感夢而作-

燕燕經盈，鶯鶯嬌軟，分明又向華胥見。‘夜長得薄情知？春初早被相思染。’

別後書辭，別時針線，離魂暗逐郎行遠。淮南皓月冷千山，冥冥歸去無人管。

-한양으로부터 동쪽으로 와서, 효종 순희 14년(1187) 정월 초하루에 남경에 도착하였는데, 강 위에서 꾸 꾸 꿈에 느낌이 있어 짓는다-

제비처럼 가쁜한 자태,

피꼬리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

분명하게 또 꿈속에서 그녀를 찾네.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박정한 이가 어찌 알겠어요?’

63) 陳潔, 〈論姜夔詞與題序之關係〉, 中國韻文學刊, 1998, p.59-61 참조.

초봄부터 벌써 그리움에 괴롭네요.’라고 내게 말하네.

이별 후 보내온 편지와

헤어질 제 만들어준 옷 그대로 있건만,

꿈속 그녀의 낮은 남몰래 멀리 나를 찾아왔다가

회남의 흰 달빛이 수많은 산들 차갑게 비추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돌아가누나.⁶⁴⁾

〈浣溪沙〉

- 予女須家沔之山陽，左白湖，右雲夢；春水方生，浸數十里，冬寒沙露，
衰草入雲。丙午之秋，予與安甥或蕩舟採菱，或舉火置兔，或觀魚簞下，山
行野吟，自適其適；憑虛悵望，因賦是闕-

著酒行行滿袂風，草枯霜鶻落晴空。銷魂都在夕陽中。

恨入四弦人欲老，夢尋千驛意難通。當時何似莫匆匆。

-나의 누나집이 한양의 산양촌인데, 왼쪽으로 태백호가 오른쪽으로 운
몽담이 둘러싸고 있다. 봄날 강물이 막 불어날 때에는 수천 리에 이르고
찬 겨울에 물이 마르면 시든 풀이 하늘까지 이어진다. 효종 순희 13년
(1186) 가을에, 누나 집에 머무르면서 누이의 아들(이름은 安)과 때로는
배를 저어 마름을 뜯고, 때로는 햇불을 들고 그물로 토끼를 잡았으며,
때로는 통발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산에서는 걷고 들에서는 시가를
 읊조리니, 이 한적하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넓은
 곳에 우뚝 서서 슬퍼 먼 곳을 바라보며, 이어서 이사를 짓노라-

64) 朱祖謀 撰(이동향 역), 《송사 삼백수》, 문학과 지성사, 2011, p.404. 원문 및 번역 참조.
洪廷瑗, 〈姜夔詞研究〉,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p.17-18
이후에 예시하는 姜夔詞의 원문 및 번역은 같은 논문을 참고 하였음.

약간 취해서 걷고 또 걸으니 갈바람 옷소매에 가득하고,
서리 맞아 시든 들판 위에 매가 맑은 하늘에서 날아와 앉네.
이별의 슬픔으로 혼이 나가 석양 속에 서 있네.

가슴 속 이별의 한 뿔뿔에 쏟아내니 사람은 노쇠해지네.
꿈속에서 驛站 찾아 헤맸으나 사랑 전하기 어려워라.
이럴 줄 알았다면 당초에 훌훌이 이별하지 말 것을.

강기의 제서는 하나의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자연스럽다. 소식사의 제서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졌으며 작자의 뜻과 정감이 솔직하게 담겨있다. 강기 사에서도 소식사와 마찬가지로 사를 지은 시간과 장소 및 창작동기를 밝히고 있는 제서를 통해 작자가 자신의 일상을 사의 소재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자가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읊어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자신의 창작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서 병기를 착실하게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자의 삶과 작품 내용이 밀착된 강기사에서도 역시 작자의 일상 모습과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실재하는 일화와 감정을 토대로 사를 지었기에 제재가 다양하고 각각의 작품마다 사연이 담겨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작자 강기가 직접 작중 화자로 나선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하고 있는 강기사는 평소 때 묻지 않은 작자의 성품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청아한 풍격을 지닌다. 65)

65) 譚宇宏, 〈姜夔詞與蘇軾詞之比較〉, 學術交流 中國古代文學研究, 總第 162期 第 9期, 2007年 9月
참조.

2. 辛棄疾

姜夔가 蘇軾의 題序併記 형식을 발전시키고 청아한 사풍을 이어나갔다면, 辛棄疾(1140-1207)은 蘇軾詞의 放曠한 풍격을 계승·심화하여 豪放詞風을 완성하였다.

신기질사 620여 수 가운데 功名과 憂國衷情 또는 懷才不遇의 감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 작품은 약 80-90여 수에 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中原 회복을 바라는 열망, 金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심, 쇠미해 가는 조정에 대한 우려, 자신의 立功에 대한 자부심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悲憤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영웅적인 인물들의 故事를 빈번히 인용하여 자신의 기개와 포부를 나타내며, 따라서 詞語와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激烈하고 悲壯하다. 아래에 그의 사를 예시로 든다.

〈水龍吟〉

-登健康⁶⁶)賞心亭-

楚天千里清秋，水隨天去秋無際。遙岑遠目，獻愁供恨，玉簫螺髻。落日樓頭，斷鴻聲裏，江南游子⁶⁷)。把吳鉤⁶⁸)看了，闌干拍徧，無人會，登臨意。

休說鱸魚堪膾，儘西風，季鷹歸未。⁶⁹) 求田問舍，怕應羞見，劉郎才氣。⁷⁰) 可惜流年，憂愁風雨，樹猶如此⁷¹)。倩何人，喚取紅巾翠袖⁷²)，搵英

66) 健康: 지금의 南京.

67) 江南游子: 강남지방을 떠도는 나그네. 작자 자신을 말한다.

68) 吳鉤: 오 지방에서 나는 寶刀.

69) 晉 張翰이 낙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가을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 생각이 나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 季鷹은 장한의 자.

70) 자기의 논밭과 집을 늘릴 걱정만 하고 나라 일은 걱정하지 않는 許汜를 劉備가 비판한 고사. 求田問舍는 자기의 논밭이나 집 걱정만 한다는 뜻으로, 원대한 뜻이 없이 사사로운 이익만 탐하는 것을 이르는 말.

雄淚.

-건강의 상심정에 오르다-

강남의 하늘은 천 리 맑은 가을
강물은 하늘 따라 흐르고 가을빛은 끝이 없어라.
아득한 산봉우리를 멀리 바라다보니
근심과 한을 일으키는데
옥비녀를 꽃은 여인의 트레머리 같아라.
해 지는 누각
외기러기 울음소리 속에
강남을 떠도는 나그네 신세로다.
오구검을 잡고 보다가
난간을 여기저기 두드리노니
높은 정자에 오른 내 마음을 아는 이 없구나.

농어회가 맛있다고 말하지 마오.
가을바람이 불어도 내 어찌 계승처럼 돌아갈 수 있으랴.
논밭을 사고 집 걱정만 하는 소인배들은
아마도 보기 부끄러워하리라
재기 넘치는 영웅 유비를.
흐르는 세월이 안타까운데
근심 걱정의 비바람 속에도
나무는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뒤에게 부탁해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와서

71) 樹猶如此: 東晉의 桓溫이 북벌할 때, 金城을 지나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심은 나무가 열
아름이나 되도록 크게 자란 것을 보고 “나무도 이와 같거늘 사람인들 어찌 세월이 늙지 않으
랴”고 탄식했다는 고사. 공을 세우지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는 자탄의 뜻이다.

72) 紅巾翠袖: 붉은 손수건과 푸른 옷소매. 歌妓를 말한다.

영웅의 눈물을 닦게 할꼬.

辛棄疾은 22세 때, 山東省 濟南에서 의병을 일으켜 금나라에 대항해 싸우다가 남도하여 남송으로 왔다. 그러나 남송 조정은 그를 중용하지 않아 그는 강남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上片은 상심정에 올라 바라보이는 경치를 묘사하면서 가슴에 이는 복잡한 감정을 토로했고, 下片은 전고를 사용해 시국에 대한 우려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했다.

〈永遇樂〉

-京口⁷³⁾北固亭懷古-

千古江山，英雄無覓，孫仲謀處。舞榭歌臺，風流總被，雨打風吹去。斜陽草樹，尋常巷陌，人道寄奴⁷⁴⁾曾住。想當年金戈鐵馬，氣吞萬里如虎。

元嘉草草，封狼居胥，贏得倉皇北顧。⁷⁵⁾四十三年⁷⁶⁾，望中猶記，烽火揚州路⁷⁷⁾。可堪回首，佛狸祠下，一片神鴉社鼓。⁷⁸⁾憑誰問廉頗老矣，尚能飯否。⁷⁹⁾

73) 京口: 지금의 江蘇省 鎮江市. 삼국 시대 吳나라의 孫權이 한 때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강동의 패권을 잡았다.

74) 寄奴: 南朝의 宋 武帝 劉裕의 아명. 유유는 京口에서 군사를 일으켜 桓玄의 반란을 토벌한 후, 병사를 이끌고 북벌하여 東晉에 이어 劉宋 왕조를 세웠다.

75) 유유의 아들 文帝가 원가 27년(450)에 경솔하게 북벌을 감행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대패하여 돌아온 것을 말한다. 신기질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당시 主戰派의 권신인 韓侂胄에게 금나라와 전쟁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76) 四十三年: 신기질이 紹興 32년(1162)에 의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이 작품을 지을 때까지 43년의 세월이 흘렀다.

77) 烽火揚州路: 작자가 南渡하기 전, 양주 일대에서 금에 대항해서 싸운 사실을 말한다.

78) 佛狸祠는 北魏의 太武帝가 세운 행궁으로, 금의 完顏亮은 불리사가 있는 瓜步山에 주둔하여 長江을 건너 남송을 공격할 준비를 했었다. 지금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불리사에서 社日 제사를 지내며 떠들썩하게 즐기고 노는데, 작자는 이런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남송의 조야가 굴욕적인 역사를 잊은 채, 안일에 빠져 지내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79) 廉頗는 趙나라의 명장이었으나 만년에 모함을 받아 梁나라로 갔다. 秦나라가 조나라를 침공

-경구 북고정에서 회고하다-

천고에 걸쳐 강산은 의구한데
영웅은 찾을 데 없으니
손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춤추고 노래하던 누대와
영웅의 풍류와 업적은 모두
비바람에 날려 사라졌어라.
석양이 비낀 초목과
평범한 여염집 골목길을
사람들은 옛날 유유가 살았던 곳이라고 말하네.
회상하면 당년에 유유는 용맹한 병마를 거느렸고
호랑이 같은 기세는 만 리를 삼켰다네.

원가년에 文帝는 경솔하게
큰 공을 세워 낭거서산에 올라 봉선하려다가
오히려 황급히 도망치며 북쪽을 돌아보는 신세가 되었다.
사십삼 년 전의 일
북고정에서 바라보며 아직도 기억하는 건
봉황불 타올랐던 양주이어라.
어찌 차마 머리 돌려 바라보랴
불리사에선
사당의 북소리가 울리고 까마귀 날고 있는 것을.
그 누가 물어보랴 열파 장군이 늙었어도

하자, 조왕은 열파를 다시 기용하려고 사자를 급파해 그의 건강을 알아보았다. 열파는 견재함을 보여주었으나 뇌물을 받은 사자는 거짓 보고를 하였고, 이에 조왕은 열파가 늙었다고 여겨 등용하지 않았다. 즉 신기질이 자신의 懷才不遇한 처지를 열파에 비유한 것이다.

아직도 밥을 잘 먹는지를.

남송 開禧 원년(1205), 66세의 작자는 鎮江知府로 있으면서 북고정에 올라 이사를 지었다. 당시의 재상 韓侂胄는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辛棄疾은 抗戰을 주장하면서도 준비 없는 경솔한 전쟁에는 반대하였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褒貶을 통해 시국을 우려하고 자신의 신세를 개탄했다.⁸⁰⁾

신기질이 이처럼 호방한 사를 쓰게 된 데에는 당시 內憂外患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金의 침략과 이에 따른 北宋의 항복, 그리고 무능하고 힘없는 조정의 모습에 뜻 있는 지식인들은 격앙된 감정을 사에 담았다. 신기질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사의 격률 같은 예술형식을 따질 겨를 없이 고조된 감정을 사에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소식은 일찍이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해서라면 예술형식은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해 내는 放曠한 기풍을 마련하였다. 즉 신기질과 그로 대표되는 南宋의 豪放詞派는 이 같은 소식의 방광한 사풍을 토대로 한 시대를 풍미할 호방사풍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다만 소식사의 방광과 신기질사의 호방에 차이가 있다면, 소식사는 悲憤慷慨나 怒氣를 거의 띠지 않는 반면 신기질사는 그 같은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사의 방광에는 사회적 모순이나 현실에 대한 격앙된 감정 보다는, 인생에 대한 객관적·긍정적인 시각과 담담하고도 거리낌 없는 태도가 강하다. 이 같은 차이는 신기질이 생존했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국이 金나라에 짓밟히고 백성들은 끝없이 피난을 다녀

80) 朱祖謀 猗畹(이동향 역), 앞의 책, p.379-382, p.385-389 원문·번역·해설 참조 및 주석 재인용.

야 했던 혼란기에 그는 애국사인으로서 시대적 비통함과 憂國表情을 사로 지었다. 즉 신기질은 사회현실에서 오는 울분과 걱정을 사에 담았기 때문에 그의 호방 속에는 비분강개가 녹아들게 된 것이다.⁸¹⁾

소식, 강기, 신기질은 모두 자신의 작품에 개성과 자아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작품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전한다. 이 때문에 독자는 작품 곳곳에서 작자를 만나게 된다. 소식과 강기, 그리고 신기질은 자신의 생활·감정·감회를 개성적으로 읊어 내어 매 작품마다 주제가 다르며 특수하다. 이에 그들은 독자에게 자신의 작사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題序를 併記하고 있다. 즉 강기와 신기질의 사는 소식사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서정’과 작자와 화자가 일치함으로써 형성되는 ‘1인칭 서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서정으로 말미암아 강기의 작품은 순수하고 고상한 작자의 인품이 묻어나는 청아한 풍격을 띠는 한편, 신기질의 사는 시대적 울분과 격앙된 감정이 담긴 호방한 풍격을 지닌다.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을 이은 그들의 사는 모두 개성적이며 작품에 자아가 표현되고 있다.

소식사는 남송의 강기와 신기질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金代 詞人 중 소식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元好問(1190-1257)을 들 수 있다. 그는 ‘金の 東坡公이라 해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평을 받는 사인이기도 하다.⁸²⁾ 원호문은 사를 논함에 있어 소식사를 으뜸으로 꼽았으며, 소식사의 훌륭한 점으로 性情의 자연스러운 發露를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원호문은 소식사 가운데 性情의 發露를 본받고자 하였으며 내용 및 제재선택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技巧적인 면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 점은 소식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81) 謝桃坊, 〈蘇辛詞風異同之比較〉 참조. (《東坡詞論叢》, 四川人民出版社, 1982)

82) 知人論世, 以謂遺山即金之坡公, 何遽有愧色耶? (況周頤, 《蕙風詞話》卷3)
(류종목, 《東坡詞研究》, p. 402-403 내용 참조 및 주석 31번 재인용)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가운데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감개를 읊은 것이 많으며 고국의 쇠망을 슬퍼하는 心思를 써낸 작품들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객지를 자주 떠돌아다녔기에 여행의 괴로움과 고독감 및 인생의 허망함 등을 노래하기도 했다.

宋의 멸망과 함께 쇠락해 가던 詞는 清代에 다시 부흥하였는데, 특히 蘇軾의 방광한 사풍이 陽羨派 詞人들에 의해 발양되었다. 그 중에서도 陳維崧은 조국 明의 멸망으로 인한 亡國의 恨을 사에 토로하였으며, 1,600 여수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사는 亡國의 悲憤慷慨를 노래한 것이 주를 이루지만 백성의 고통이나 하층민에 대한 동정, 暴政에 대한 풍자 등도 담고 있어 사의 내용 범위가 넓고 풍격이 매우 호방하다. 이에 陳廷焯은 “氣魄이 고금에 적수가 없으며 渾厚沈鬱함만 더한다면 東坡와 辛棄疾도 능가한다.”고 하였고, 蔣兆蘭은 “才力이 웅장하고 풍부하며 기개가 뛰어나 蘇辛派가 이에 이르러 才人의 能事를 다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⁸³⁾ 진유송은 소식과 마찬가지로 사를 창작함에 있어 일부로 꾸미거나 치장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며, 참된 감정과 뜻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⁸⁴⁾ 나아가 그는 신기질의 현실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사회모순을 폭로하였다.⁸⁵⁾

83) “詞陵詞，沈雄俊爽，論其氣魄，古今無敵手。若能加以渾厚沉鬱，便可突過蘇辛，獨步千古，惜哉。”(陳廷焯, 《白雨齋詞話》)

“至清初陳詞陵，納雄奇萬變於令慢之中，而才力雄富，氣概卓犖。蘇辛派至此，可謂竭盡才人能事。後之人無可措手，不容作，亦不必作也。(蔣兆蘭, 《詞說》) (신현석, 앞의 논문, p.324 내용 참조 및 주석 31, 32번 재인용)

84) 周絢隆, 〈論 陳維崧以詩爲詞的創作特徵及基意義〉, 《文藝研究》, 2004.

85) 梁鑒江, 〈稼軒詞與迦陵詞〉, 《廈門教育學院學報》, 2004.

Ⅶ. 결론

詞는 詩와 더불어 抒情文學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자의 서정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蘇軾詞는 당시 사 작품들과는 다른 특별한 서정을 지니고 있어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보다 진한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소식은 자신만의 확고한 문학창작 이념을 지닌 인물이었다. 먼저 소식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辭達論’을 통해 규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문학을 창작함에 있어 내용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형식 또한 홀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소식은 사를 지을 때도 내용과 예술형식을 모두 중시하면서, 자연스러운 내용전달이 필요할 때는 융통성 있게 예술형식을 운용하였다. ‘成竹在胸論’은 창작하기에 앞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잘 정리한 다음, 순간을 포착해 일필휘지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식은 이렇게 해야 핵심이 잘 드러나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고 여겼다. 이 역시 ‘내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辭達論’과 일정부분 一脈相通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식은 ‘自然成文論’을 통해 억지로 글을 짓거나 일부로 조탁하는 글짓기를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진실한 생각과 감흥 및 깨달음을 작품에 담아야 한다고 여겼다. 소식이 자신의 삶 자체를 사의 제재로 취한 데에는 이 같은 ‘直接經驗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식은 문학창작에 임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個性化論’ 역시 그의 詞作에 영향을 미쳐 일률적이고 협소한 당시 사들과는 다른, 소식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사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게 하였다.

소식의 문학관은 그의 굴곡 많은 인생 및 풍부한 감성과 어우러져 소식사

에 독특한 서정을 담아내기에 이르렀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스토리가 있는 서정’이다. 소식은 ‘직접경험론’을 詞作에도 적용하여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감흥을 사에 담았다. 소식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사로 노래했다는 사실은 소식사의 형식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題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각각의 소식사는 모두 사연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소식사들과 서로 연관성을 지니면서 ‘소식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이룬다. 한편 소식사의 내용은 대부분 그의 實話이고 그 안에서 전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 역시 실재했던 것이기에, 감상자는 그의 사에서 소식의 참모습과 꾸밈없는 솔직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소식사로 하여금 다른 사들보다 순도 높은 진정성을 지니게 하며, 그 결과 감상자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두 번째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은 바로 ‘1인칭 서정’이다. 소식은 자신의 일상을 사로 노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작중 화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작자와 화자가 일치되면서 소식사에는 소식의 실제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는 당시 사들이 가상의 인물을 꾸며내어 보편적이고도 허구적인 감정을 전하던 것과 분명히 다르다. 소식은 독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세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한편 작품 속 감정은 소식이 평생 살아가면서 느낀 진실된 감정인 동시에 인류가 삶을 살며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자나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작가와 친밀감을 느끼고 더 깊은 공감을 이루게 된다. 요컨대 1인칭 서정은 작품 속에 소식의 자아가 살아 숨 쉬게 하여 청자·독자들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하며 작자와 보다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소식은 사를 통해 ‘나’의 사연을 ‘내’가 직접 화자로 나서 이야기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스토리가 있는 서정’과 ‘1인칭 서정’은 소식의 평소 性情이 사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였다. 소식의 울곧은 인품

과 긍정적이고도 성숙한 인생관은 맑고 고상한 분위기와 자유분방함으로 가득한 소식사를 형성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를 ‘清雅’·‘放曠’한 풍격이라 규정하였다. 청아한 사풍은 맑고 한적한 정취와 담담하면서도 성숙한 인생관이 묻어나는 풍격으로, 소식사의 대부분이 이 같은 사풍을 지닌다. 방광한 사풍은 자유분방하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듯한 풍격을 말한다. 한편 내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준으로 독특하게 운용되는 소식만의 句法은 이 같은 방광한 풍격을 뒷받침 해준다.

소식사는 이후 수많은 사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식사 특유의 서정을 이은 대표적 사인으로 南宋의 姜夔와 辛棄疾을 들 수 있다. 먼저 강기는 소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갖가지 일들을 사의 제재로 취하였으며 청아한 사풍을 계승하였다. 강기사의 제서는 소식의 제서에서 좀 더 발전해 길이도 늘어나고 내용도 풍부해졌으며 훨씬 정련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편 신기질은 소식의 방광한 서정을 계승하여 호방한 풍격을 완성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식이 그에 앞서 방광한 작품을 짓고, 넘치는 감흥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예술형식 운용을 先行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식사의 제서 병기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대중적인 사를 문인의 개인적인 사로 끌어당기고 있으며, 1인칭 서정으로 인한 감정의 보편화는 문인의 개인적인 사를 다시 대중적인 사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식사는 이 같은 내적인 수렴과 외적인 확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 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소식사의 서정은 당시 일률적이고 협소하던 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예술형식의 독창성도 가져왔다. 그 결과 소식사는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이후 많은 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소식사 특유의 서정은 소식사가 詞

文學 發展史上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정의 관점에서 소식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에 비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소식사를 살펴보고 이해하였다. 다만 필자의 詞에 대한 지식과 능력 부족으로 사의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서술한 반면, 예술형식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후에 기회가 닿는다면 소식사의 독특한 서정과 예술형식과의 관계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1. 單行本

- 蘇軾, 《蘇軾文集》, 中華書房, 1992.
-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吉林教育出版社, 1991.
- 劉少雄, 《東坡以詩爲詞論題新詮》, 里仁書局, 2006.
- 王思宇主編, 《蘇軾詞賞析集》, 巴蜀書社, 1990.
- 蘇軾研究學會編, 《東坡詞論叢》, 四川人民出版社, 1982.
- 中國人民大學中文系主辦, 《中國蘇軾研究》, 學苑出版社, 2004.
- 강재철, 《漢詩文學의 理論과 批評의 實際》,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김영구, 《중국문학사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 류종목, 《蘇軾詞研究》, 중문, 1993.
-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신서원, 2005.
- 유병례, 《송사, 노래하는 시》, 천지인, 2009.
- 이동향, 《稼軒辛棄疾詞研究》, 通文館, 1985.
- 이경규, 《唐宋詞》, 제이엔씨, 2007.
- 차주환,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홍우흠, 《蘇東坡 文學의 背景》,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 오수형 편역, 《당송팔대가의 산문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朱祖謀 엮음(이동향 역), 《송사 삼백수》, 문학과 지성사, 2011.
- 蘇軾(류종목 역), 《소동파 사선》, 지만지고전천줄, 2008.
- 蘇軾(류종목 역), 《소동파 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楊海明(류종목, 송용준 공역), 《唐宋詞史》, 신아사, 1995.
- 柳永(박홍준 역), 《柳永詞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楊海明(이종진 역), 《唐宋詞風格論》, 신아사, 1994.
- 吳戰壘(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 辛棄疾(이태형 역), 《辛棄疾詞集》, 학고방, 2010,
- 吳熊和(이홍진 역), 《唐宋詞通論》,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2. 國內論文

- 신현석, 〈東坡詞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창경, 〈東坡詞에 나타난 自我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정현, 〈歐陽脩詞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노선녀, 〈蘇軾詞의 風格 分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민정, 〈柳永과 蘇軾의 歌妓詞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영자, 〈蘇軾의 哲理詞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현석, 〈東坡蘇軾詞 研究 -黃州時期를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1984.
- 여승연, 〈蘇軾 豪放詞의 分類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현경, 〈소식의 생애와 작품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준화, 〈蘇軾詞의 特徵 및 政治生涯別 創作傾向의 變化〉,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현미, 〈晏殊詞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전승연, 〈蘇軾詞 意境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홍연원, 〈姜夔詞研究〉,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종성, 〈蘇軾과 黃庭堅의 文學理論 比較〉, 《中國語文論譯叢刊》, Vol.16, 2005.
- 류종목, 〈蘇東坡의 文學理論〉, 《中國文化研究》, Vol.2, 1993.
- 류종목, 〈蘇軾詞의 淵源〉, 《외국어교육연구》, Vol.6, 1991.
- 류종목, 〈潁州·揚州시기의 東坡詞〉, 《東亞文化》, 제 44집, 2006.
- 류종목, 〈東坡詞의 特色〉, 《中國語文學》제 10집, 1985.
- 박홍준, 〈柳永의 慢詞와 문학의 대중화〉, 《진리논단》, Vol. - No.6, 2001.
- 박홍준, 〈柳永詞의 形成과 宋代의 民間詞〉, 《中國語文學》, Vol.55, 2010.
- 송용준, 〈小山詞의 風格과 特色〉, 《中國語文學》, Vol.3 No.1, 1981.
- 신현석, 〈蘇軾의 謫居時期 文學 考察〉, 《中國人文科學》, Vol.7, 1988.
- 신현석, 〈陽羨派 詞論 研究〉, 《中國人文科學》, Vol.21, 2000.
- 오태석, 〈중국 시가 발전 단계론 탐색〉, 《中國文學》, Vol.20, 1992.

- 이동향, 〈辛棄疾詞의 用典〉, 《中國語文論叢》, Vol.20, 2001.
- 이홍진, 〈蘇東坡詞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 38, 2006.
- 정태업, 〈張先詞에 나타난 前代詞風の 收用과 脫出〉,
《中國語文論譯叢刊》, Vol.17, 2006.
- 조규백, 〈出仕와 隱退間의 갈등과 그 해소 -蘇軾詩의 한 단면-〉,
《中國文學研究》, Vol.13 No.1, 1995.
- 홍서연, 〈姜夔 詞의 文學적 형식미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Vol.47, 2010.

3. 國外論文

- 馬桂玲, 胡建次, 〈歷代詞論中的東坡論〉, 《洛陽師專學報》, 1992,
第18卷 第1期.
- 田繼平, 〈東坡詞의 抒情性〉, 《山西大學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總第40期 第4期.
- 徐定輝, 〈論東坡詞의 人生意蘊〉,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 第23卷 第6期.
- 王洪, 〈論東坡詞의 “雅化”及其對詞史의 影響〉, 《中國人民大學學報》,
1997, 第1期.
- 鄭園, 〈東坡詞中的時間與夢〉,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
第41卷 第6期.
- 陳洁, 〈論姜夔詞與題序之關係〉, 《中國韻文學刊》, 1998.
- 姚大勇, 〈姜夔詞小序研究〉,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
第26卷 第4期.

- 譚宇宏,〈姜夔詞與蘇軾詞之比較〉,《中國古代文學研究》,2007,
總第162期 第9期.
- 桑冬芳,〈蘇軾、辛棄疾詞的異同淺析〉,《青海師專學報(教育科學)》,
2007,第3期 No3.
- 劉揚忠,〈元好問對辛棄疾其人其詞的接受和學習〉,《忻州師範學院學報》,
2012, Vol.28 No.3.
- 黃春梅,〈論宋詞對元好問詞的影響〉,《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第24卷 第7期.
- 梁鑒江,〈稼軒詞與迦陵詞〉,《廈門教育學院學報》,2004.
- 周絢隆,〈論陳維崧以詩為詞的創作特徵及基意義〉,《文藝研究》,2004.

ABSTRACT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yricism from So Sik(蘇軾)'s
poetical composition(詞)

Cho ChungA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 Sik(蘇軾, 1036-1101) was a writer of great literature representing literature from Sung(宋) Dynasty and left many achievements showing natural talents in many areas including poem·sentences·poetical composition·paintings.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especially, formed a new ground differentiating with existing poetical composition and became a great turn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poetical compos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lyricism of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which was not studied deeply by previous studies. The study examined unique lyricism inherent in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based on life and literature of So Sik and searched for its roots. The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and meanings of lyricism by So Sik on 292 pieces of the chronicles of So Sik.

So Sik was a person with the philosophy of strong belief in literature creation of own. First, So Sik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s and form of literature through 'Sadalron(辭達論)'. From here, he regarded contents first most of all but stated that he did not neglect a form of art. 'Sungjukjaehyunron(成竹在胸論)' means that a painting is finished without hesitation after completing bamboos in mind. It means that one needs to clearly define one's abstract thoughts and feelings and show this in the core of pieces through natural and flowing writings. On the other hand, 'Jayeonseongmoonron(自然成文論)' is a argument objecting to writings to write and artificial carving. So Sik practiced throughout this life the concept of literature creation of writing with natural motive and not deliberately decorating writings. So Sik also emphasized 'direct experience theory(直接經驗論)' that pieces should be written with thoughts and inspirations obtained through direct experience. 'Gaesungwharon(個性化論)' by So Sik that pieces should be expressed in unique colors with own stories and thoughts based on forementioned philosophy of literature must have been too natural for him.

These literature philosophies by So Sik contained special lyricism in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by harmonizing with his rocky lives and abundant feeling. The most prominent lyricism shown in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is 'lyrics with stories'. So Sik sang poetical composition using feelings that he felt from his daily lives by applying 'direct experience theory' to verse creations. This can be verified through writings stating time and place of creation and motives.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are about stories of lives by So Sik and each verse contains a story. Poetical composition have connections to each other and form a larger story. Listeners·readers feel his sincerity as well as lingering images and emotion because the contents of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are real stories. The second is 'first person lyrics'. So Sik wrote stories about himself so often he became the narrator. Actual thoughts and feelings of So Sik were shown as they were in pieces by coinciding writer and narrator. So Sik relayed his feelings honestly and in details by facing readers personally without creating fictional persons unlike other verses from the Sung Dynasty. Feelings within pieces are sincere feelings felt and lived by So Sik through his life and it is a common feeling that men feel and live at the same time. Thus, it maximizes sympathy from appreciators since these are universal feelings felt by the men while living in this world.

The verses by So Sik naturally contains nature of So Sik because of 'first person lyricism' created by directly singing with his own voice and 'lyricism with stories' created with his won actual stories

as subjects. The verses by So Sik contained the characters of Chunga (清雅), Banggwang(放曠) by naturally fusing his upright personality and positive and mature view on life.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were known as unrestrained so far but his poetical composition are mostly clear and refined thick with elegant atmosphere when we look at his pieces. Free-spirited atmosphere as if running wildly in carefree can be regarded as showing his masculine side. Unique structural method by So Sik managed based on natural flow of contents also lends hands in forming free-spirited lyrics.

The characters of Chunga(清雅), Banggwang(放曠) created by his unique lyricism had affected many poets since then. Among those especially, Ganggi(姜夔) and Shingijil(辛棄疾) poets in the era of Southern Sung Dynasty sang with their own voices about thoughts and feelings that they felt in the lives. brief summary of creating motive as a means for obtaining understanding and sympathy from readers by creating poems with own feelings and stories and not based on universal sympathy. As a result, lyrics by Ganggi shows Chunga by containing his personality of purity in his pieces. On the other hand, Singijil completed free-spiritedness by succeeding lyricism of So Sik.

Story telling through writings by So Sik transforms popular poetical composition to personal poetical composition by a writer and generalization of feelings through the first person lyrics acts as transforming personal poetical composition to popular poetical composition again.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maintain tight

tension between internal convergence and external expansions. Lyricism by So Sik without bounded by existing frames of poetical composition made contents of poetical composition abundant which were uniformed and narrow at the time and resulted in originality in art form as well. As a result,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were reborn as pieces with personality and originality. Frank true lyrics originated from a life full of ups and downs and abundant feelings by So Sik charm listeners and readers. Lyricism of poetical composition by So Sik affected many poets later and had a big influence in establishing absolute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poems.